

Better People Better World

좋은사람 좋은세상

2008 7-8

경제특별도를 넘어 문화선진도를 향한
'공부하는 지사'의 끝없는 도전기



머리글 前 여성가족부 차관 박승주

7·8월프로그램

Issue&Seminar OBS경인TV 사장 주철환

CoverStory 충청북도지사 정우택

기획특집 미래를 디자인하라

리더십이야기

Workshop

명사초청특강 한국관광공사 사장 오지철

발행인편지

독서경영 오픈세미나

창조경영시찰-일본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유상욱

제26회 제주섬머포럼

문용린칼럼

표지인물 정우택 지사 | 사진 오경근 원장



인간개발연구원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통권 제88호 [비매물] 등록번호 : 서울 마 03200 발행일 : 2008년 7월 1일 발행인 : 장만기
편집 : 정용달 디자인 : 이제경 pas@khdi.or.kr T.070-7500-9500(대) F.2203-1974 (주)동명인쇄
주소 : 135-28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6-4 동성빌딩 202호 www.khdi.or.kr

경제특별도 충북 투자유치

(2008. 5. 27)

15 조원 돌파

2008. 4. 23(14조 돌파)

2007. 12. 26(13조 돌파)

2007. 9. 7(12조 돌파)

2006. 7. 1(민선 4기 출범)

- 이전 및 증설기업 인센티브 제공 : 50억원 ~ 최고 100억원
-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 1,000억원 조성목표
- 기업인 예우문화 조성 : 24가지 예우시책 추진
- 이수데이 (매월 둘째주 수요일) : 도지사 기업 방문의 날 운영
- 삼수패미리데이 (매월 세째주 수요일) : 가족과 함께 재래시장 가기
- 각종 공장설립 민원 One-Stop으로 처리

투자문의

충청북도 투자유치팀 : 043-220-3211~14
서울 투자유치센터 : 02-3462-6561



공직자의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소통의 통로이고 시대적 당위이다

박승주 한국시민자원봉사회 집행부회장 / 전 여성가족부 차관

나라를 이끌어 가는 공직자들은 국정운영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 중에서도 고위 공직자들의 생각과 행동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즉각적이고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국민의 선거로 선임되는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정군수구청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교육위원과 국회의 청문회를 거쳐 선임되는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국무위원인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이 대표적인 고위 공직자이며, 민간 차원에서는 국가 기능을 대행하는 공기업 사장과, 법률에 의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나 기관의 장을 공직자로 볼 수 있다.

이들 고위 공직자들은 국민들을 설득하고 권유하며 때로는 지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그 의도나 뜻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내용보다는 공직자 개인의 말이나 행동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다. 대학(大學)은 '하늘은 말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군자의 정치를 알 수 있다'고 하였고, 논어(論語)에서도 '백성들의 신뢰를 얻은 후에 백성들이 따라 오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공직자들에게 도덕성의 위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인'이라는 의식과 사회적인 책임의식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반면 일반 국민들의 민주 시민의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은 점점 높아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높아지고 있다.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고 때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기름띠 제거 자원봉사에 자비를 들여 흔쾌히 참여한 사실만 보아도 이러한 시민의식이 얼마나 확대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공직자들의 생각과 행동은 정책화되고 법령화되어 국민들로 하여금 그것을 따르도록 강제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덕성의 위기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고위 공직자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는 데서 시작된다. 사회적 책임은 사랑과 화합, 나눔과 배려를 몸소 보여주는 것이다. 봉사정신은 머리로 생각한다고 길러지지 않는다. 실제로 봉사활동에 주기적으로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항상 역지사지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옳은 것을 구하여야 몸에 체득되는 것이다.

봉사활동 과정에서 공직자와 국민들은 공통의 관심사와 주제를 갖게 되고, 그에 관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정부와 국민간

에 의사소통의 통로를 생성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슬기롭게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공통된 해결 기반도 가지게 되어, 현대사회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계층간 갈등이라든가 국가 구성원 상호간의 결속력 약화 등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공직사회가 주말을 보람있는 봉사활동으로 알차게 보내고자 하는 노력들에 적극 나선다면, 공무원과 국민들 간에는 상상 이상의 훨씬 더 큰 창조가치가 부여될 것이다. 이웃에 대한 관심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참여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국가에 대한 믿음과 신뢰라는 커다란 교육적 효과도 가져다 줄 것이다.

이제는 고위 공직자들부터 솔선하여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고,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낄 때가 되었다. 이는 각계각층의 국민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신뢰받는 정책을 구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는 공직자로 성장할 수 있다. 정치(政治)란 곧 인정예치(仁政禮治)이다. 이는 국민들을 사랑으로 바로잡고 예로서 다스려야 한다는 뜻으로, 이의 기본은 겸손과 공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들이 각종 공직 선거에서 자원봉사 잘하는 인재들을 적극 지지하고, 국회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내정자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꼼꼼히 검증한다면 공직자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고위 공직자들부터 솔선하여 자원봉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중하위직 공직자까지 확대되고, 모두가 바라는 밝고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희망한 국가사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



박승주 집행부회장

1952년 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산업공학 석사를, 동국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21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30년간 공직에 근무하면서 내무부 차치과장,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장, 대통령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기획운영실장 등을 지냈으며, 여성가족부 차관으로 공직을 1차 마감했다. 월드컵 성공 유공으로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였으며, 저서로는 지방자치 의원보감, 마지막 남은 개혁이 있다. 공무원은 봉사정신이 뛰어나야 한다는 생각에서 사무관 때부터 자원봉사운동에 참여하여 13년째 활동하고 있다.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07:00~09:00

古典의 숲에서 리더십을 찾다

제1555회 7월 3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크리스탈볼룸

조직원들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끌어올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민경조 부회장은 논어의 '안연편'에 나오는 공자와 자공의 대화를 사례로 제시한다.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는 먹을 것을 풍족케 하고, 군비를 충분히 하고, 백성들이 믿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한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믿음이라고 했다.

논어를 1천번 이상 읽을 정도로 고전에 심취해있는 민 부회장의 '논어경영'은 서로 믿고 제 역할에 충실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경영철학이다. 그는 부하직원들과 일을 공유하고, 부하직원들을 믿고 일을 맡기기 위해서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최신 경영기법에만 관심이 있을법한 대기업 CEO들이 고전을 읽고 있다. 흔히 고전을 두고 '오래된 미래'라고 한다. 왜일까? 진정한 경영학적 통찰은 인문학 속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서양에서는 동양사상 특히, 중국의 고대사상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전 세계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의 영향력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 나라의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나라의 중심적인 의식구조와 사고방식을 이해하면 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마음과 생각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코오롱그룹에서 30여년간 일하며 성공한 CEO로 평가받고 있는 민경조 그룹 부회장을 초빙하여 동양 고전철학에서의 가르침을 통한 그의 경영철학과 함께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상상하여 창조하라-지식 생태학자 유명만의 생각혁신 프로젝트

제1556회 7월 10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크리스탈볼룸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상상력'이다. 유치원 아이들의 교육에서부터 대기업의 창조경영에 이르기까지 창조적 사고(creative thinking)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아인슈타인은 "지식보다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미래 성장의 동력으로서 상상력의 힘을 역설한 바 있다. 이처럼 갈수록 창조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상품과 서비스로 연결되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지식 생태학자 유명만 교수는 치열한 비즈니스 경쟁에서 선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조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차별적 콘텐츠를 생산해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은 겉으로 드러난 요구뿐만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욕망이나 욕구를 누가 더 먼저 찾아내어 빠르고 싸게 만족시키느냐 하는 블루오션의 경쟁이 한창이다. 이러한 블루오션은 전적으로 독창적인 콘셉트(concept)로 콘텐츠(contents)를 창출하여 '차이'를 드러내는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창조적 상상력은 태어나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일상에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유명만 한양대 교수를 초빙하여 상상력과 창조성의 본질은 무엇이며, 갈수록 왜 중요해지는지,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유명만의 생각혁신 프로젝트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민경조 코오롱그룹 부회장

서울대 상학과 졸업 | 서울대 경영학 석사 | 1977년 (주)코오롱 입사 | 코오롱그룹 회장비서실 부장 | 코오롱건설 전무, 총괄부사장, 사장 | 코오롱엔지니어링 총괄부사장 | 코오롱개발 부사장, 사장 | 월드와이드넷 사장 | 코오롱스포츠 사장 | 그린나라 사장

〈상훈〉 은탑산업훈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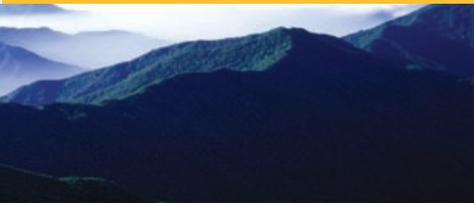


유명만 한양대 교육공학과 교수

한양대 교육공학과 졸업 | 한양대 교육공학 석사 | 美 플로리다주립대 교육공학 박사 | 삼성인력개발원 기획개발팀 | 삼성경제연구소 인력개발원 | 한양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센터장 | 현대기아자동차그룹 교육자문 교수 | 한국교육공학회 이사 |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이사 | 한국지식경영학회 편집위원 겸 지식생태학 트랙장 | 한국리더십학회 이사

〈상훈〉 미국 볼주립대 자기학습과 네트워크학습 Excellent Presentation 수상, 한양대 교내60주년기념 최우수 교수상 차

〈저서〉 지식경제시대의 학습조직, 상상하여 창조하라 : 지식생태학자 유명만의 생각혁신 프로젝트 차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는 격변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경영자와 지도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연구하고 상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인간적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며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가는 데 상호협동하는 길을 모색하는 지식·정보 교류와 친교의 광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주례 조찬 강연회로서 과거의 기업 경영자 회원 중심에서 요즘에는 전현직 각료를 비롯한 한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회원들도 함께 하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6회 독서경영 오픈세미나

젊음의 탄생 - 창조지성을 향한 물음표와 느낌표

2008년 7월 14일(월) 강남교보타워빌딩 23층 강연회장



이어령 중앙일보 고문 / 전 문화부 장관

서울대 국문학과 졸업 | 서울대 국문학 석사 | 단국대 국문학 박사 | 1956년 한국일보에 '우상의 파괴'로 등단 | 이화여대 교수, 석좌 교수, 명예교수 | 한국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논설위원 | 초대 문화부 장관 | 새천년준비위원회 위원장 | 사이언스 북 스타트업운동 공동대표

<상훈>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대한민국 예술원상, 3.1문화상 예술상 외

<저서> 이어령 라이브러리(전30권), 한중일 비교문화상징사전 매화 소나무 종이나라, 디지로그, 젊음의 탄생 외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나이를 잊은 사람이다. 세월에 아랑곳없이 저술과 강연 등 활발한 활동을 한다. 연전에는 '디지로그'라는 신조어를 통해 새로운 사회의 키워드로 제시하더니 이번에는 '젊음'을 화두로 들고 나왔다.

<젊음의 탄생>은 지난 2008년 3월 3일 서울대 입학식에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축사 "뗐다 뗐다 비행기"를 발화점으로, 저자 이어령이 그간 여러 대학과 각종 강연에서 피력해 왔던 젊은 세대를 향한 목소리와 평소 젊은 지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한데 묶은 책이다.

대학이라는 인큐베이터에서 벗어나 창조적 지성인으로 거듭나려는 젊은 지성들에게 창조적 지성을 향한 갈증을 해소시켜 줄 9개의 'up'키워드와 9개의 매직카드를 제공함과 동시에 물음표와 느낌표를 던진다. 곧 이 시대 젊은이들의 지성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주고, 그들의 젊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줄 마술이며, '창조지성'을 향한 커다란 발걸음이다.

이번 독서세미나에서는 지난 50여 년 간 한국 문화와 문화의 최전선에서 예리한 시선과 부지런한 필봉을 놓지 않았던 이어령 박사를 모시고 주어진 정답을 벗어나 모든 가능한 생각들과 소통하며 창조적 지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창조적 사고 진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시간을 갖는다.

정치리더십과 미래비전

제1557회 7월 17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美 아이오와대 정치학 박사 | 국민대 정치대학원 부원장 |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부소장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문교수 | 한국매니페스토운동실천본부 자문교수 | 서울시 정책자문단 위원 |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 한국선거학회 회장 | 한국정치학회 이사

<저서> 노무현정부에서 참여정치의 신장과 한계, 한국의 선거V, 한국의 대통령 리더십과 국가발전 외

리더십은 가치 있는 비전을 제공하여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들과 함께 성공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리더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며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니즈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기업은 물론 정치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미래는 국민이 선택하는 지도자의 리더십에 의해 결정된다. 국민들은 특정 시기에 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비전과 정책적 방안을 갖고 있는 지도자를 선택한다. 국가의 경우 점쟁이가 말하는 '운명'은 없다. '운명'을 강조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의 중요성을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데서 비롯된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엄연히 국민의 선택과 지도자의 리더십이 합쳐진 결과이다.

이제는 대결과 대립이 판을 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 대통합과 상생의 정치, 새로운 정치를 지향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21세기 최대 목표이자 과제는 선진국 진입이다. 선진경제를 위한 정부와 국회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때이다. 선진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미비점 보완에 주력하고 경제활성화, 물가안정, 사회통합 등에 전력을 기울여야 진정한 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김형준 명지대 교수를 초빙하여 국민보다 딱 반보 앞서는 개혁과 국민여론을 살피고 설득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정치리더십과 이를 통한 미래비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 7월 24일은 제주섬머포럼 관계로 휴회하며 7월 31일은 독서경영 오픈세미나로 대체됩니다.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1달러의 애상(愛想)

제1558회 8월 7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기업경영에서 '이윤추구'는 지금까지 기업의 최우선 목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치창조'나 '고객만족'이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여기에 '섬김'과 '나눔'이 기업을 성장 발전시키는 근본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섬김과 나눔은 성경적 관점에서의 경영원리와 같은 것이다.

신앙과 경영의 접목으로 기업을 성공시킨 기업가, 김창송 회장은 기업경영과 신앙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성경적 개념으로 경영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경영인이다. 함경도에서 태어나 혈혈단신 월남해 지금의 '성원교역'을 일으킨 김 회장은 어릴 때부터의 신앙생활을 근간으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신용과 정도경영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신앙이 없는 국내 기업인들에게 믿음을 전하기 위해 분주한 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바쁜 기업활동과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정구 글쓰기 과정을 거쳐 수필가로 등단한 김 회장은 그동안 여러 권의 수필집을 출간해 기업가로서의 차별화 전략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 최근에는 성원교역 창사 40주년과 그를 낳아 키워주신 어머니 50주기를 기념해 <1\$의 애상>이라는 책을 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성경적 경영으로 올바른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창송 회장을 초빙하여 섬김과 나눔, 신용을 바탕으로 한 정도경영과 함께 수필가로서의 삶에 대한 성찰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기술혁신-사람에 대한 신뢰와 끈기로 만든다

제1559회 8월 14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기업의 지속성장발전을 위한 요소로서 R&D와 인재개발에 대한 투자는 기업경영의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선진 기업의 경우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타고 R&D 및 인재육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경영 전반에 내세우고 있다.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콜마 글로벌네트워크의 기술 노하우와 생산 노하우를 기반으로 1990년 일본콜마와 합작으로 설립된 한국콜마는 화장품과 의약품 연구개발, 제조 전문기업이다. 한국콜마는 그동안 한국 화장품업계의 화장품 생산시장을 기술시장으로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화장품업계 최초로 ODM(제조사 자체개발 주문생산)시스템을 창시하고, CGMP(우수화장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기준을 도입한 한국콜마는 연구개발, 제조분야의 전문화를 통해 한국 화장품산업의 기술적, 품질적 성장을 가져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콜마는 이러한 연구개발, 제조 전문화를 통해 매출 1천억원 돌파로 중견기업 대열에 오르기도 했다. 기술혁신을 통한 한국콜마의 성장 뒤에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한편 윤동한 회장은 만학의 열정으로 평생 몸담아 오던 화장품 B2B산업에 대한 논문으로 처음으로 발표해 최근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학계는 물론 산업계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뷰티&헬스케어 분야에서 세계 넘버원의 연구개발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는 한국콜마의 윤동한 회장을 초빙하여 100년의 전통과 함께 사람에 대한 신뢰로 이룬 기술혁신의 비결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김창송 성원교역(주) 회장

고려대 경영대학원 | 중앙대 경영학 석사 | 성원엔비켄(주) 대표 | 성원산업상사 대표 | 한국수입업협회 초대 연수원장, 부회장, 고문 | 아시아기독교실업인회 이사장 | 한국기독교실업인회 회장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수필산책문학회 부회장 | 한국수필문학진흥회 이사 | 인간개발연구원 부회장

<상훈> 한국무역협회장상, 대통령표창, 이스라엘 통상장관상 및 산업무역장관상 외

<저서> 비즈니스기행, 지금은 때가 아니며, 환상의 여로, 귀히 쓰이는 질그릇, 1달러의 애상 외



윤동한 한국콜마(주) 회장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서울대 경영대학원 수료 | 수원대 경영학 석·박사 | 농협중앙회 근무 | 대응제약(주) 부사장 | (사)한국상품학회 부회장

<상훈> 벤처기업전국대회 대통령상, 중소기업부문 신지식인 선정, 2004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선정, 한국인사관리학회 경영자 대상, 중소기업을 빛낸 얼굴들 선정, 2008 IMI경영대상 외



손병옥 푸르덴셜생명보험 부사장

이화여대 영문학과 졸업 | 서강대 경영대학원 | 美 조지메이슨대 석사 | Midland Bank, Seoul 인사, 회계, 감사 부장 | HSBC, Seoul 인사, 회계, 감사 지배인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인사개혁전문 자문위원 |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 숙명여대 커리어자문위원회 위원 | 이화여대 자문위원회 위원, 리더십개발원 멘토 | Make-A-Wish 한국재단 이사 | 푸르덴셜 사회공헌재단 이사

<상훈> 이화여대 2004년 올해의 이화인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 美 매사추세츠공과대 경영학 석사 | 美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 제10회 행정고시 합격 | 駐OECD대표부 경제공사 | 대통령비서실 기획조정비서관 | 대통령비서실 정책1비서관 | 초대 여성부 차관 |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 외교통상부 대외직명 대사 |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상훈> 근정포장, 황조근정훈장

<저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생산성과 분석,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 및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정책적 함의 외

인재개발과 기업경쟁력

제1560회 8월 21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2000년,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맥킨지는 '인재 전쟁(war for talent)'을 예고했다. 급변하는 기술변화시대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인재가 기업경쟁력의 원천이며, 이런 인재의 확보와 육성이 기업경쟁력 제고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였다. GE의 잭 웰치 전 회장이 "내 업무의 70%는 인재의 확보다"라고 했던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최근 포천 500대 기업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85%가 글로벌 인재가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답했고, 67%가 글로벌 인재의 역량이 질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니나 다를까. 기업간 인재전쟁은 더욱 치열해져 해당 분야에서 국내 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최고 실력의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 CEO가 전 세계를 여행하는가 하면 경쟁사가 확보한 인재를 가로채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채용이 원석을 찾는 일이라면, 임직원 교육은 보석을 만들어 내는 일'이라는 인식에 따라 내부 인재육성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한 예로 현대자동차의 1인당 연평균 교육시간은 임직원 65시간, 일반관리직, 연구직은 연 100시간을 넘어선다. 결국 21세기 기업의 생존전략은 지식과 정보가 풍부한 인재를 확보하고 그 인재를 기업에 맞게 개발시키는 일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국내 선두 보험회사로 자리잡은 푸르덴셜생명보험의 최초 여성임원이자, '푸르덴셜의 어머니'라 불리는 손병옥 인사담당 부사장을 초빙하여 푸르덴셜생명의 발전 뒤에 숨겨진 인재개발과 육성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의 비법을 들어본다.

한국경제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미래전망

제1561회 8월 28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지금 세계는 세계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우리가 선진 경제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냐의 여부는 이런 세계사적 큰 흐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를 통해 경제와 민주주의에 성공한 세계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유엔과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강한 지도력을 발휘하며 자유무역과 민주주의를 촉진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 한국이 세계 11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경제는 양적인 성장전략이 한계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체할 발전 모델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양대문제로 집약되는 사회경제적 위기상황 또한 문제다. 한편 앨빈 토플러는 "소수의 거대 기업에 지나치게 편중된 경제구조가 한국경제의 약점"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들을 없애기보다는 부를 창출하는 다른 원천을 개발해야 하며, 특히 튼튼한 중견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는 세계적 흐름에 주목하면서 우리의 상황에 맞는 선진화 과제의 모색과 함께 미래의 국가전략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정부 경제개발계획 수립과 경제정책 입안, 미래전망과 비전 등을 제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싱크탱크, KDI의 현정택 원장을 초빙하여 세계화시대 한국경제가 가지는 강점과 약점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미래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제1551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변화를 즐기는 삶

6월 5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주철환 OBS경인TV 사장

내가 변화를 즐겼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돌한 말일 수 있다. 하지만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30년 전인 1978년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2년 6개월 동안 일했다. 내 나이가 올해로 54살인데, 동안이라는 말을 들곤 한다. 나는 이 점을 내 경쟁력으로 여긴다.

동안의 뿌리는 동심이라고 생각한다. 나 또한 동심으로 살다가 동심으로 죽으리라 결심했다. 내 목표는 귀여운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귀한 곳에 써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동심은 한편으로는 순수하지만 한편으로는 유치하다. 동심을 유지하려면 순수함도 잃지 말아야 하지만 유치함도 피할 수 없다. 유치함이 창의력의 발상에 뿌리가 되기도 한다.

우리 방송사명이 OBS 경인TV인데, 'O'가 어떤 단어의 약자인지를 많이 궁금해한다. 그럼 당신이 상상하는 'O'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상상하고 한다. 'O'에 특별한 의미를 두진 않지만 가장 맘에 드는 것은 'One'의 의미로 'Number One'이 아니라 'Only One'이다. 'Number One'이 되려고 할 때의 강박관념과 무게감을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

물론 시청자에게 가장 사랑 받는 방송사가 되고 싶다는 욕망은 있다. 하지만 주제를 알아야 한다. 우리 방송사는 이제 5개월이 지났다. 내 경

영원칙은 'Step by Step', 한 걸음 한 걸음씩이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Case by Case'를 추가해서 우리만의 색깔을 가진 'Only One' 방송사가 되게 하고 싶다.

소통과 단절을 넘나드는 '말'

'좋은 말만 하다 죽자'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지만 언어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언어는 부메랑과 같은 것이다. 우리 회사에 주주가 여러 명 있지만 지금 회장으로 계신 김성재 회장은 자수성가한 분이다. 그래서 방송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렇다고 내가 '당신은 방송을 모르니 조용히 하라'고 말하면 이것은 소통 단절이 된다. 불신이 되고, 결국 나와 결별하게 된다.

김성재 회장은 6.25사변 때 고아가 되어 초등학교 2학년이 정규학력의 전부다. 하지만 그 부분을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한다. 그는 나보다 훌륭한 점이 많고, 또 한편 나는 나의 전문성이 있으니 서로 보완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김성재 회장과 만나면 돈 안 들이고 경영대학원을 다니는 것 같고, 교육자 생활을 10년간 했기에 김 회장은 나를 통해 교육대학원을 다니는 것과 같다고 한다.

내 신념 중의 하나가 '좋은 말만 하다 죽자!'이다. 내가 누군가의 단점을

발견했다면, 그 자리에서 지적하기보다는 좋은 이야기를 해준 뒤 '이런 점만 고치면 100점이 되겠는데' 하고 말하면 그도 기분 나쁘지 않게 수용한다.

교사생활을 할 때, 어떤 선생님이 한 아이를 문제아라며 미리 조심하라고 말해줬다.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문제아'가 뭐냐고 물었다. 보통 문제를 만드는 아이를 생각하지만 나는 문제를 제기하는 학생이 아니냐고 했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학생이 수업시간에 빼딱한 자세로 앉아있다면 다 이유가 있다. 수업이 재미없기 때문이다. 재미없는 수업시간은 학생 잘못이 아니라 선생님 잘못이다. 선생님이야말로 소통하고 포용하고 겸손하고 성찰하는 신사 고를 가져야 하는 직업이다.

우리 회사 직원들은 전에 iTV라는 모체가 있었다. 97년도에 굉장한 의욕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엄청난 분규를 겪었고, 결국은 방송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공중파 방송사를 문 닫게 만들었다. 당시 직원이 300~400명이었으나 이 중 절반이 회사를 떠났고, 160여명이 끝까지 투쟁을 해서 새로운 방송사로 허가를 받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직원들에게는 '3불'이 있다. 과거에 대한 불신, 현재에 대한 불만,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것이다. 때문에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도 잘 믿지 않고 의심을 한다. 이것을 어떻게 불신에서 믿음으로, 불만에서 만족으로, 불안에서 안심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 '3사'를 얘기했다.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찬사, 미래에 대한 봉사를 하자고 한 것이다.

고민이 많아 우울해 하는 친구에게 고민이 많을 때는 영안실에 가보라고 한다. 영안실에는 방금 죽은 사람도 있는데, '넌 살아있고, 걸어다니고, 가족이 있고, 직장이 있지 않느냐'고 하면 본인을 놀린다고 생각하고, 주철환은 모든 것을 말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라고 생각한다. 말로 사람들을 움직일 수도 있고, 말로 사람들을 단절시킬 수도 있다.

화를 낸다고 얻을 수 있는 것 없어

포용력과 전문성 갖춘 '귀여운 할아버지' 되고 파

5개월 된 우리 회사가 지금 수입이 있을까? 여러분이 광고주라면 기쁜 마음으로 광고하겠는가? 내가 만약 그 입장이라면 광고하지 않는 것을 비난하면 안 된다. 5개월 된 방송국이고 OBS를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어제도 어떤 기사에서 내 이름을 거론하면서 내가 아주 근경에 처해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악의적인 기사였지만 화를 낼 수는 없었다. 사실과 다른 내용 때문에 화가 났었지만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다르다. 54년을 살아오면서 화를 내서 얻은 것은 분명 없었다. 화가 났을 때 오히려 참으니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예전 '퀴즈 아카데미'를 할 때, 기자들이 '문제가 너무 가볍다'라는 기사를 썼었다. 퀴즈라는 것은 원래 가벼운 것이다. 그때 화를 내지 않고 퀴즈라는 것은 깃털과 같고, 깃털이 모이면 날개가 되고, 날개가 펼쳐지면 세상을 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하자 기사를 썼던 기자가 우군이 되어 그 다음부터는 좋은 기사를 써줬다.

나는 우리 아들과 '부자유친'이라는 계약을 맺었다. '부드럽고 자상하고 유연하고 친절하게 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니 아들이 나를 좋아하고, 아들의 친구들과도 나는 친구다. 아들 친구들이 함께 모여 있다고 연락이 오면 꼭 가서 술값을 내주고 대화를 한다. 지금은 대부분 군대에 가 있는데, 휴가 나오면 10만원을 주면서 나중에 첫 월급 타면 나맛 있는 것 사주라고 한다. 이제는 그 친구들이 휴가 나오면 모두 내게 전화를 한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미래는 두 가지 얼굴이 있다. 단순미래와 의지미래이다. 날씨가 흐려서 비가 오는 것은 단순미래이다. 기도한다고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내가 귀여운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되는 것은 단순미래이다. 내가 친구들보다 조금 동안이라고 해서 할아버지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귀여운 할아버지의 '귀여운'은 의지미래이다. 그래서 귀여운 할아버지가 되려면 젊은이를 포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젊은이가 잘못했다고 야단을 치면 더 멀어지는 결과만 낳는다. 그럴 때마다 나의 20살 시절을 생각해보았다.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길게 하면 듣고 있기가 참 힘들었다. 꼼짝하지도 못한 채 그 말을 들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寸鐵殺人(촌철살인), 頂門一鍼(정문일침)으로 말은 간결하고, 그 말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늘 생각했다. 귀여운 할아버지가 되려면 그런 포용력이 있어야 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Membership, Partnership, Friendship, Leadership을 기억하자 방송은 농사짓는 것과 같은 이치

하루에 네 번 회사 전체를 돌아다니는데, 운동도 되고 직원들과 자주 만날 수 있어 좋다. 일부 임원들은 사장의 체통과 권위가 떨어진다고도 한다. 권위라는 것은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내가 가진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무게 잡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다니면서 직원들의 이름을 불러본다. 직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배를 타고 희망봉으로 가는데, 나는 이 배의 선장이다. 일단은 내 양심, 양식과 같은 내 전문성을 믿어주기 바란다"고 한다.

가끔 누군가 내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내가 왜 여기 와서 사장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오라는 대학교수 자리를 떠날리기도 한다. 그러나 임기를 채우지 않고 그만두면 우선 내 명예가 실추될 것이다. 또 OBS는 어떻게 되겠는가? 선장이 비가 많이 온다고 혼자만 배에서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아직도 몇 척의 배가 있다'는 말을 떠올린다. 그러면서 '내 인생에 필요한 배들이 많이 있구나'를 생각한다. Leadership, Friendship, Partnership, Membership, Ownership, Showmanship, Skinship 등 배들은 많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4개의 배, 멤버십, 파트너십, 프렌드십, 리더십이 필요하고 또 이것을 기억하자고 한다. 자격만 있으면 되는 것이 멤버십이고,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것이 파트너십이고, 친구가 꿈을 이루었을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이 프렌드십이고, 친구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리더십이다.

250명의 식구들, 동생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물론 그들이 자신의 전문성 개발과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안정된 직장, 자기 노동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원하고 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월급에 자존심을 갖도록 우선 월급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나는 마음을 열 수 있다. 하지만 지갑을 여는 사람은 주주들이다. 내가 주주를 설득해야 한다. 설득이라는 것은 말로서 그들에게 이익이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다.

방송을 위해서는 하루에 1억 5천만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간다. 이 비용은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다. 드라마 한편 제작하는 데만 해도 한 회당 2억원 정도가 투입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루 1억5천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한 달에 2억의 수익을 낸다는 것은 사실 무리다.

김성재 회장도 이 부분을 걱정하셔서 '방송은 농사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고, 씨를 뿌려야 한다. 지금 우리 방송국은 씨를 뿌린 단계이다. 앞으로 모내기도 해야 하고 잡초도 뽑아줘야 한다. 가뭄이 들기도 하고, 홍수도 날 것이다. 그 시련을 거치고 가을 햇살을 맞이하면 추수가 시작된다. 이것을 탈곡하고 포장해서 팔면 돈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1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회장님도 이해하셨다. 만약 다른 방송사와 계속해서 비교를 했다면 비극은 시작된 것이다. 삶에 있어서 비교를 하면 행복은 오지 않는다. 그러나 비유를 하면 행복이 찾아온다. 그래서 비교를 삼가고 비유를 즐기자고 이야기한다.

회장님께 우리 방송사의 위상을 숙박업체에 비유해 호텔인지, 모텔인지, 여관인지, 여인숙인지를 물었다. 당연히 호텔이라고 답했다. 호텔은 호텔로서 갖춰야 할 것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우리 방송사가 백화점인지, 슈퍼마켓인지, 구멍가게인지를 다시 물었다. 회장님은 백화점이라고 답했다. 그럼 백화점에 칫솔 몇 개, 치약 몇 개만 진열돼 있으면 손님에 올지를 다시 물었다. 초기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수긍하셨다.

어떤 사람은 우리 회사가 이렇게 가다가는 곧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한다. 자본금은 정해져 있고, 주주들은 반발할 것이고, 직원들은 동요될 것이고, 상대방 방송사의 견제는 심해지고 있다. 광고시장에는 한계

가 있는데 우리가 그 시장을 뺏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사를 줄이자는 사람들도 있다.

이번에는 솔로몬의 심판을 비유로 회장님께 말씀드렸다. 한 아이를 두고 엄마 둘이서 서로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는데, 솔로몬은 아기를 반으로 잘라 서로 나눠 가지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진짜 엄마는 '내 아이가 아니니 살려 달라'고 한다. 결국 솔로몬은 살려달라는 부모의 편을 들어주었다는 비유로 회사를 살려야 되고, 성장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 최선을 다해 죽는 날 최고가 될 심정으로

사랑이 무엇일까? 우리말에서 'Like'와 'Love'의 뜻은 분명히 다르다.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개를 잡아먹고, 개를 사랑하는 사람은 개를 키운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꺾어 자기 방에 놓고 향기를 즐기다 시들면 버리고 잊어버린다. 이것이 좋아함의 사이클이다. 그러나 꽃을 사랑하면 그 꽃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빛깔과 향기를 뽐내면서 즐기게 만들어준다.



▶ 상. 주철환 사장은 삶에 있어 변화를 즐길 것을 주문했다.
▶ 하. 6월 5일 제1551회 경영자연구회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사실 우리 회사는 어렵다. 광고도 힘들고, 노조는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있다. 임원들도 내 생각과 모든 것이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나와 같은 삶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나처럼 현장 뛰어나다면서 직원들과 호형호제하며 지내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

그 때는 사장은 나니까 내 스타일을 존중해달라고 한다. 존경은 아니더라도 존중해주면 내가 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가 초라하면 반성문 쓰고, 벌금 내라면 벌금 내고,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한시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면 죽는 날에 최고가 될 거라 생각한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속히 비교할 것이 없더라'는 좋은 말이 있다.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인가? 28살에 논산훈련소에 가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연무대의 교회에 갔었다. 교회에 들어서자 양쪽 벽면에 성경 말씀이 붙어 있었는데, 그 말에 용기를 얻었고,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한쪽 벽에는 빌립보서 4장 6-7절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말씀이 있었다. 다른 한쪽 벽에는 욥기 23장 10절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는 말씀이 있었다.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인생

同化되는 마음으로 변화를 즐기자

인생은 끝없는 학습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DRAMA)'를 두고 오행시를 지어봤다. 우리 모두는 Dream, 꿈을 꿈다. 그 꿈은 대체로 비슷하다. 사랑과 행복, Romance(로맨스)이다. 사랑과 행복만 있으면 몽상가이다. 그 뒤에 오는 것이 바로 Action(실행, 실천)이다.

PD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액션이다. 액션을 외치면 현장은 바빠진다. 액션 전에 반드시 하는 말이 'Standby'이다. 경건하게 준비하라는 것이다. 스탠바이 전에는 리허설이 있다. 충분한 리허설이 있어야 스탠바이가 가능하다. 액션이 끝났다고 무조건 OK가 나는 것은 아니다. 촬영장에서는 10번 중 8번은 NG가 난다. 그럼 다시 하게 된다. 그러나 NG를 두려워하면 다시 액션하기가 힘들어진다. NG는 당연한 것이다.

달라이 라마는 '성공과 실패는 똑같이 좋은 것'이라고 했다. 성공은 보람을 주고, 실패는 교훈을 주기 때문이다.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는다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Dream(꿈)을 꾸었고, Romance(로맨스), 그 꿈이 사랑과 행복, 평화

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Action(실천)했다. 그런데 난 열심히 살았는데도 자꾸 NG가 난다. 최선을 다했는데 세상은 날 알아주지 않고, 이런 대우밖에 해주지 않을까 하지만 그것이 인생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Mystery(미스터리)가 해답이다.

열심히 했다고 다 잘 되면 세상은 재미가 없어진다. 춘향전에서 춘향이 이 도령과 똑 같은 신분으로 만나서 아이 낳고 잘 살면 무슨 재미가 있었을까? 심청이 부잣집에 태어나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아버지를 만났으면 무슨 재미가 있었을까? 스토리에는 시련, 갈등 구조가 있어야 재미가 있다.

그런데 미스터리며 머물면 회의론자가 된다. 젊은이들 중에도 회의론자가 많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재미가 있겠느냐고 묻는다. 재미는 시련이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감동을 주겠느냐고 묻는다. 그것은 '내가 손해를 보면 된다'고 이야기 해준다. 그러면 젊은이들은 '내가 왜 손해를 봐야 하냐고 따져 묻는다. 이렇게 만든 교육이 문제다.

마지막으로 'A'는 끝없는 희망이며 도전인 Adventure이다. Dream, Romance, Action, Mystery, Adventure. 이것이 드라마의 구조이고, 우리 인생을 드라마처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단계이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똑 같은 100개의 구슬주머니를 주셨다. 50개는 행복의 구슬, 50개는 불행이라는 구슬이다. 그런데 계속해서 불행의 구슬이 나올 때 하나님이 자신을 미워한다는 생각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 발상을 바꿔야 한다. 불행의 구슬이 나오면 '이제 나에게 불행이 멀어지는구나, 불행이 멀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반대로 주머니에서 좋은 구슬만 나올 때는 겸손하고 감사해야 한다.

나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늙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늙을 것이다.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시간이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 즐겨야 한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변화는 동화(同化)에서 나오는 것이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된다.

내가 학생들에게 비유 들기를, "비가 있는데 자신이 너무 싫고 더 강한 '뻐'가 되고 싶어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질문했다. 답은 간단하다. '뻐'를 만나면 '뻐뻐'가 되고, '뻐'를 만나면 '뻐뻐'가 된다. 그럼 "어떤 애는 나는 '뚱'이 싫고 해 뜨는 '둥'이 되고 싶어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질문한다. 이 역시 '뚱'을 만나면 '뚱뚱(뚱뚱)'이 된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자음동화로 자음이 다른 쪽을 닮아서 그와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기도 하고, 양쪽이 서로 닮아서 두 소리가 다 바뀌기도 하는 현상이다.

'뚱'이 '뚱'이라는 친구를 잘 만나 변화를 즐기는 삶이 된 것이다. **▶▶▶**

경제특별도를 넘어 문화선진도를 향한 '공부하는 지사'의 끝없는 도전기

정우택 충청북도지사

"기업유치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들이 경제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충북의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했고, 그 방법을 교육에서 찾았습니다. 15조원에 이르는 투자유치 성과가 이 믿음을 증명합니다."

정우택 지사의 부드러운 미소 속에 자신감과 함께 깊은 성취감이 묻어 났다. 그도 그럴 것이 정 지사 취임 23개월 만인 지난 5월말 현재, 충북도에 투자한 기업만 93개에 투자금액이 15조원을 넘었다. 이는 도정사상 최고이자 전국 최고에 이르는 경이적인 기록이다. 정 지사는 이 같은 성과가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경제마인드가 제고됐기 때문이라며, 투자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한 직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경제특별도 건설과 함께 후반 도정 키워드로 '문화선진도 건설'을 선언한 정 지사는 섹소폰을 연주하고 패션쇼 무대에 오르는 등 문화도지사로서 충북의 문화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꿈과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그 무엇보다 강조하는 정우택 지사를 만나 그간의 투자유치 성과를 들어보고, 문화선진도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대담 ·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사진 오경근 원장

취임 2주년을 맞으시는데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지난 2년간 도정을 이끌어 오신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치 두 달 같이 느껴질 정도로 빠르게 지나간 2년이었습니다. 취임 후 '대한민국 투자 1번지,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을 위해 정말 숨 가쁘게 달려 왔어요.

지난 2년은 충북의 미래비전인 '아젠다 2010'을 수립하고 경제특별도 선포식을 갖는 등 '잘 사는 충북 행복한 충북'의 기틀을 다지는 한편, 도정 각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와 함께 각종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먼저 '06년도에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와 낙후된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바이오농산업단지 입지결정, 오랜 기간 끌어오던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 하청노조 사태 등을 해결했습니다. '07년도에는 경제특별도 선포와 함께 '충북 아젠다 2010'을 수립,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단일 규모 국내 최대인 하이닉스 반도체를 유치했습니다. '08년도에는 새정부 출범 등 시대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면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한국관광총회와 지역균형발전의 의지를 담은 신지역발전선포식을 갖는 등 발전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정우택 지사

1953년 생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하와이대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22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경제기획원 법무담당관 등으로 일했다. 이후 정치에 입문해 제15, 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해양수산부 장관, 민화협 공동의장, 국회보훈특위 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2006년 7월 민선4기 32대 충북도지사에 취임해 충북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대통령표창을 수상했으며, '아버지가 꿈꾸는 세상 아이들에게 물려줄 희망', '좋은사람들' 등의 책을 내기도 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 사상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준 산하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제특별도 건설' 선포는 어떤 비전으로 시작하시게 된 겁니까?

경제특별도란 150만 도민을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결집해 기업환경을 비롯한 경제활동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 충북도는 경제특별도 선포식을 갖고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해 전국에서 가장 빠른 발전을 이루자는 겁니다. 기업인들이 우대 받으며 최적의 투자환경 속에서 가장 역동적인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만들자는 의미죠.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라는 도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인 동시에 충북의 미래비전이기도 합니다.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실행전략인 아젠다 2010의 주요전략은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Buy 충북', 대규모 투자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충북 뉴딜플랜', '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 등을 골자로 합니다. 이를 통해 충북은 2010년 1인당 도민소득은 1.7배 증가한 3만3천불, 제조업체는 1천7백개 늘어난 7천5백개, 일자리는 7만5천개 늘어난 76만개, 수출은 150억불로 도민 1인당 1만불 수출시대를 열게 될 겁니다.

그동안 투자유치 실적이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유치자금 상당수가 충북의 4대 전략산업인 고부가가치산업에 투자됐다고 하던데요.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지난해 1월 경제특별도 선포를 계기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역동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5월말 현재, 충북도가 발로 뛰어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총 93개 업체에 15조106억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내기업이 88개에 14조4천306억원, 외국기업이 5개에 5천800억불이죠. 이에 따른 파급효과도 대단합니다. 10조1천억원이 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1천7백억원이 넘는 지방세 수입 증대, 고용유발 15만2천명, 인구유입 10만4천명에 이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민선3기 4년 동안 유치한 14조1천억원의 성과를 1년 11개월만에 약 9천억원 초과달성한 성과입니다. 경기도에 비해 인구규모가 1/7

에 불과하고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에서 일궈낸 성과라 더욱 의미가 있어요.

특히 총 투자유치 금액의 90%에 이르는 13조3천874억원이 우리도의 4대 전략산업인 바이오, 반도체, 차세대전지, 부품소재산업 등에 투자됐다는 것이 고무적인데요. 이로써 지역의 산업을 첨단산업 위주로 바꾸는 산업구조 고도화의 전망이 밝아졌습니다.

지난 4월에는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한 '제10회 환경마케팅 대상'에서 '경제특별도 BIG 충북'이 영예의 대상에 선정되는 등 경제특별도 건설 노력이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객관적인 평가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가 대한민국 투자의 중심, 투자하기 가장 좋은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15조원 돌파를 자축하는 출판기념회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23개월간 투자유치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현장의 에피소드를 담은 사레집 <생초짜들 일했네>를 출판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자리를 지난 5월 27일 가졌습니다. 도민·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유치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유공 공무원들에게 표창하는 시간을 가졌죠.

보통 사람들은 기업유치가 별 어려움 없이 쉽사리 성사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뛰어보면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고, 어느 한 기업도 쉽게 모셔온 경우가 없거든요. 어떤 기업은 100번 이상을 방문해 투자유치를 성사시키기도 했습니다.

우리도는 투자유치단을 설치하는 한편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서울에 투자유치센터를 두고 8명의 직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투자유치를 위해

24시간 총력을 다하되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진땀개가 돼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투자유치 15조원을 달성하면 꼭 책을 쓰라고 했죠.



▶ 충북은 23개월간 93개 기업, 15조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이번 사레집은

민선4기 출범 이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투자유치 활동을 벌여온 살아있는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최일선에서 발로 댄 역군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진솔한 이야기죠.

이번 사레집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가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업유치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한편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히고, 어렵게 유치한 기업을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마인드 함양이 무엇보다 중



▶ 양병무 원장과 정우택 지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요할텐데요. 이와 관련한 교육에 대한 투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기업유치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경제마인드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충북은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공무원의 의식개혁에 서부터 시작했어요. 15조원에 이르는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성과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를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함께 도·시군 경제담당 공무원의 경제마인드 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업무를 전담할 산업단지 담당 공무원 및 외국인투자유치·경제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해 철저한 경제마인드로 무장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격월 1회로 실시하던 '21C 청풍아카데미'를 매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죠.

이를 통해 충북은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한 민원처리를 기존 3~4년에서 1~1.5년으로 단축시켰으며, 하이닉스 공장설립의 경우 보통 30일이 걸리던 허가를 단 6일만에 처리해주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지난 3월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특위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발표하는 영광을 얻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원과 함께 하고 있는 '21C 청풍아카데미'가 올해부터 확대 운영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참여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강도'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지난해까지 년 6회 실시했던 아카데미를 금년부터는 매주 개최하고 있어요. 급변하는 시대에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카데미 참석대상 또한 도청 공무원에서 금년부터는 일반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매주 10% 이상씩 참여하는 등 일반인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도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광판 등을 통해 강연일정을 홍보하는 한편 강연내용과 관련있는 단체 및 기관 등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를 매주 실시하다 보니 이제 목요일은 청풍아카데미 강연이 있는 날로 인식되어 직원들이 앞을 다투어 강연장을 찾고 있어요. 도는 이에 그치지 않고 도민들의 관심분야를 파악하고 꾸준한 참여를 유도해 평생교

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연초에는 충북인재양성재단이 출범했다고 들었습니다. '교육강도(教育強道)' 실현이라는 지사님의 의지가 실현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도는 '교육강도 5대 전략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데요. '교육강도'는 민선4기 2차 년도를 맞아 대규모 투자유치로 '비상하는 경제특별도' 건설과 함께 지역인재양성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도정 철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충북인재양성

재단 설립도 그 중 하나죠. 사람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맞아 우수인재를 양성하자는 겁니다. 이 외에도 인터넷 수능방송, 전략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평생교육 활성화기반 조성, 학교주변 환경개선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은 2017년까지 매년 1백억원씩 10년간 1천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모인 기금으로 매년 20~30억원을 투입해 장학 지원사업, 미래지도자 양성사업, 인재양성 조사 연구사업 등을 우선 시행할 예정입니다.

평소 '공부하는 지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교육에 대한 지사님의 철학이 궁금합니다.

과거의 행정은 지시행정에 의한 내무행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시에 따른 일 처리로는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처할 수가 없어요. 지역발전의 근간인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먼저 경제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의식개혁이 필요했고, 그 방법이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결국 교육을 최우선 순위에 놓으면서 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개혁적인 마인드로 바뀌었고, 이것이 투자유치 15조원이라는 신화창조의 밑거름이 된 겁니다.

저 역시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여러 조찬모임에도 꾸준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충청의 힘-중원포럼'을 발족하고 공동대표를 맡았는데요. 중원포럼은 충청지역 기업인과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해 충청지역의 경제발전을 논의하는 모임으로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는 포럼입니다.

민선4기 후반 도정 키워드로 '문화선진도 실현'을 선언하셨는데요. 문화선진도 구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말씀해 주시죠.

문화예술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이 바로 '문화선진도' 건설입니다. '문화선진도'는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자원에 가치를 불어넣어 지역문화를 발전시키자는 것으로 충북의 '문화 르네상스'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도는 고부가가치산업인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의 대표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영상미디어산업 등 지역특화 문화산업 육성과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도서관 등 생활밀착형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문화재단 설립으로 문화예술진흥의 주요 시책사업을 민간자율체제로 운영하는 등 창조문화 동력 확보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수요자 중심의 도립예술단을 창단해 경제특별도 건설과 행복한 도민 구현을 위한 문화선진도 실현 계획을 수립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난 3월에는 한국관광총회를 유치한 바 있고, 6월말에는 한·중·일 관광장관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관광에도 많은 힘을 쏟고 계신데요.

지난 3월 청주에서 열린 제4회 '2008 한국관광총회'는 국내외 관광산업



▶ 지난 3월 청주에서는 2008 한국관광총회가 열렸다.

전 분야에서 1,500여명이 참가한 한국관광업계 최대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특히 팜투어, UN-WTO특별포럼,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한국지부총회, 해외바이어 초청 비즈니스 상

담, 대학생 취업박람회, 충북관광사진전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충북관광의 무한한 잠재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죠.

이 대회를 통해 순 매출액이 54억원에 이르는 등 경제효과와 함께 전국의 관광업계 종사자들에게 한국관광산업의 발전방안과 상호 네트워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6월 22일부터 나흘간 예정된 제3차 한·중·일 관광장관회담은 2006년 일본 홋카이도, 2007년 중국 청도와 대련에 이어 열리는 행사로 충북과 부산이 공동 개최하는 행사예요. 한·중·일 정부 및 지자체, 관광업계 대표 등 세 나라 관광 지도자가 모두 참가하는 가운데, 관광장관회담, 3국 우호교류행사, 팜투어, 업계회의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도는 이러한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관광인프라 구축 및 관광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2010 제천국제한방엑스포와 연계해 '2010 지역방문의 해'를 충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의 해외여행 자유화 물결을 타고 해외여행에 나선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청주공항 활성화와 차이나월드 조성 계획도 추진 중에 있죠. 이 모든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관광의 불모지였던 충북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2010년에는 관광객 5천만명 시대를 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작년 송년모임에서는 색소폰 연주를, 연초와 지난달에는 패션쇼 무대에서 지사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화도지사로서의 이미지 변신에 대한 반응이 좋던데요.

'악기 하나쯤은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관심은 있었지만 기회

가 없었는데, 우연히 도내 예술인들과 대화를 하다가 권유를 받고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지난 연말 송년음악회까지 참가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 후로도 기왕에 시작한 일 임기 중에 마스터하겠다는 생각으로 매주 꾸준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 좌. 색소폰을 연주하는 정우택 지사
▶ 우. 유니세프 기금마련을 위한 앙드레김패션쇼 무대에 오른 정우택 지사

1월 17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복패션쇼는 '한국최고경영자회의' 주관으로 열린 '창조경영대상 시상식'을 겸한 MBC 드라마 '정조대왕 이산' 패션쇼에 참가했던 겁니다. '이산'의 이순재씨 등 출연진들과 나란히 무대에 설 수 있었던 즐거운 경험이었죠.

또 지난 5월 26일에는 청남대에서 열린 '앙드레김 특별 패션쇼'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패션쇼는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유니세프 협력도로 협약을 체결한 우리도가 세계환경의 날을 앞두고 열악한 환경으로 고생하는 세계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구호기금 마련을 위해 개최된 행사였습니다.

이런 외부경험은 도정방침의 하나인 '참여하는 문화'를 현장에서 체감하는 동시에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도민에게 다가가는 현장중심 행정을 통해 도민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해결하는 도민 감동 행정을 펼치는 것이 참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맞아 인간개발을 통한 인재양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강도'와 '인간개발'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도가 추진하는 교육강도는 세계화시대에 글로벌 리더, 미래 지도자를 양성해 지역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는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연구원의 설립 이념과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앞으로도 교육강도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충북도의 동반자로서 도민의 평생교육의 장인 '21C 청풍아카데미'가 '열린 학습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인간개발연구원이 인간개발을 통한 인재대국 건설의 중심에 자리하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KKH

미래사회에 대한 예측은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디자인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본원은 급변하는 미래사회의 트렌드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알아보고, 격변의 미래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보고자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을 초청해 미래포럼 및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5월 23일 숙명여대에서 "세계의 미래, 아시아의 미래,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된 미래포럼에는 호세 꼬르데이로 MIT 초빙교수가 강사로 나섰다. 이어 29일에는 제롬 글랜 유엔미래포럼 회장이 인간 개발경영자연구회 연사로 나서 "미래예측과 인류사회의 미래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본원과 유엔미래포럼은 (가칭)한 국미래전략원 창설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의 미래예측과 토론의 장을 지상중계한다.



▶ 5월 23일 숙대에서 미래사회를 전망하는 미래포럼이 열렸다.

[미래포럼]

세계의 미래, 아시아의 미래, 한국의 미래

2008년 5월 23일(금) 숙명여대 100주년 기념관

호세 꼬르데이로 MIT 초빙교수

유엔미래포럼은 전 세계 약 60개 지부가 있고, 나는 베네수엘라 대표를 맡고 있다. 유엔미래포럼은 지난 12년 동안 매년 UN미래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그것은 지구촌이 돌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 15개 과제에 대한 연구이다. 이번 <2007 미래보고서>에는 '한국의 2030 교육의 변화'가 주제였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추천하기도 했다.

아시아로의 권력이동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깊어봐야 한다. 미래는 50년 예측을 기본으로 하는데, 아시아의 재부상은 누구나 예측하는 일이다.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상황에서 성장엔진 대부분이 아시아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가 쇠퇴하고 유럽 또한 인구감소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나는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서도 살고 싶고, 마지막에는 중국에 가서 살고 싶다. 이제 인류의 역사는 아시아가 쓰기 때문이다.

올림픽을 예로 보면, 1964년 도쿄가 올림픽을 개최했고, 1972년에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등 올림픽을 따라 권력이 이동한다. 이 후로 아시아가 큰 힘을 받기 시작했다. 엑스포도 경제활력을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된다. 스쿠바, 오사카에서 엑스포가 열렸다.

아시아로 권력이 이동한다고 볼 때, 두 번째 예가 한국이다. 1988년 한국에서 올림픽이 열렸고, 가장 성공한 올림픽 중의 하나로 기록되었다.



▶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호세 코르데이로 교수

또한 1993년 대전에서 엑스포가 열렸다. 2002년 월드컵 또한 아시아의 주력 세력인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동시에 개최했다. 올해는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열린다. 2012년에는 상하이에서 엑스포가 열린다. 도쿄도 2016년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

지식혁명시대 집단지성으로 변화

앞으로는 지식혁명시대가 도래한다고 얘기한다. 지식혁명은 제로섬게임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을 상대방에게 주면 상대방도 또 나에게 주어서 점점 더 많아지는 혁명, 정보가 확산되는 혁명이다.

2003년 미국 정부는 미래의 산업은 나노, 바이오, 인포, 코크노라고 발표했다.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이 진화하고 새로운 신인류가 탄생

한다. 이제는 인간도 박테리를 창조하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

기계가 인간과 같이 똑똑해지는 해가 2029년이다. 이것이 무어의 법칙에서 대부분 증명되었다. 30년 전에 8인치 플로피디스크가 이제 16GB로 발전했다. 이처럼 과학의 발전이 인간을 바꾼다. 기억의 용량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등 많은 변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는 지식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옛날에는 머릿속에 외워 가지고 다녔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언제든지 검색을 하면 엄청난 정보와 접속할 수 있다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리고 한 사람이 생각하는 한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지식이 되어 집단지성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 집단이 지식을 정제하는 역할을 한다.

미래는 노력으로 만들어 가는 것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4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타조같이 시키면 하는 수동적인 사람이다. 두 번째는 소방관처럼 불이 나면 달려가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불이 나기 전에 미리 보고 보험 정도 들어놓는 사람이다. 미래전문가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바로 네 번째 유형인 빌더이다. 미래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여러분은 타조처럼 시키면 하는 사람이 아닐까 바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첨단과학기술로 타조 또한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날 수 있다.

현재 왜 세포가 죽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쥐를 6년간 즉, 인간의 수명으로 환산했을 때 300년간 살게 하는 연구가 성공했다. 만약 20년 동안 쥐가 살아있다면 영생이나 마찬가지로 해서 현재 성공 단계에 있다.

정자나 난자 같이 재생산되는 세포는 죽지 않는다. 암세포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1951년에 둔 암세포가 지금도 자라고 있다. 이처럼 정자와 난자가 늙지 않고, 암세포가 죽지 않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원인이 밝혀지면 세포의 노화를 막을 수 있다. 미국 정부는 노화를 질병으로 보고 치료법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나는 세계인이다. 온갖 나라를 여행하면서 힌두교 신자도 불교 신자도 되어 보았다. 이처럼 다양한 종교와 문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첨단과학의 발전으로 다같이 부유해졌으면 좋겠다.



▶ 호세 꼬르데이로 교수의 주제발표 후 패널토의가 이어지고 있다.

[패널토의 I]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미래의 기술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불가능이 없는 미래의 기술이 현실의 권력세계, 정치세계 앞에서 무능해질 수 있지 않을까?



예컨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있는 한 베네수엘라의 미래는 없다. 마찬가지로 북한에 김정일의 권력이 있는 한 북한에는 미래가 없다. 현실과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가 권력인데, 이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

두 번째는 50년쯤 뒤 한중일 공동정부가 탄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이 아시아의 대

표가 될 수 있을까? 한중일은 역사적으로 관계가 얽혀있고, 각 나라의 문화나 성격이 다르다. 특히 요즘 중국에 대해 한국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 번째는 트랜스휴먼에 관한 것이다. 전 인류가 트랜스휴먼이 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연 그대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트랜스휴먼의 탄생은 이를 뛰어 넘어 원숭이와 사람처럼 절대적인 종의 차이이다. 이럴 경우 능력이 뛰어난 트랜스휴먼과 자연상태에 머무는 내추럴휴먼 사이에 종적인 차이가 벌어짐으로써 인류사회에 피할 수 없는 계급적, 권력적 재앙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호세 꼬르데이로 교수

과학기술의 발전이 세계적인 독재자들의 영원한 정치세력화를 소멸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옛날에는 뉴스가 공유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정보공유, 접속공유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투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면서 독재자들은 사라질 것이다.

중국은 1820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다. 그러다 산업혁명으로 유럽에 권력을 빼앗겼지만 지금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일본은 한 때 대만, 중국, 한국 등을 점령했었지만 지금은 평화유지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때문에 한중일이 느슨한 하나의 경제블록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생물학의 진화를 보면, 남아있는 인간과 트랜스휴먼으로 변하는 인간 사이에는 갈등이 있겠지만 생명체는 항상 진화시키고 강화시킨다. 인간은 처음에 안경이 없었지만 안경을 개발해서 더 멀리 보려는 노력을 해왔다. 옛날에는 옷을 입지 않았지만 이제 옷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었다. 이처럼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 치유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치유법도 나오게 될 것이다.

[패널토의II] 이경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고 시장경제가 세계경제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 기술의 혁명이 큰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세 가지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첫째는 에너지자원과 식량 문제다. 장기적으로는 이 문제도 기술에 의해 극복 가능할 것이다. 둘째는 상대적인 빈부격차의 문제다. 세계화를 통해 가장 수혜를 보는 곳이 중국이고, 피해를 보는 곳이 미국이



다. 셋째는 현존하는 UN, IMF, WTO 등 국제기구들이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대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세계경제가 이런 과제들을 극복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은 불확실하고 위협할 수 있다.

세계경제에서 가장 활발한 지역이 아시아경제다. 그러나 아시아가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개발, 인적자원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민주주의의 질서 확립과 법치제도 확립 등 제도적으로 선진화되지 않고는 발전을 지속하기 힘들다.

호세 포르테이로 교수

세계경제, 시장경제, 에너지부족, 빈부격차, 질병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국제기구가 필요하다는데 동감한다.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20년 전에 UN미래포럼 밀레니엄 프로젝트가 결성된 것이다.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15대 지구촌과제의 해결을 위해 각 정부가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각 국가를 방문하면서 이야기하고, 때로는 강력하게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아시아의 경제성장과 관련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국 투명성과 민주주의의 확립이다. 그래야만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는 반드시 인적자원 개발을 전제로 한다. 지식경제사회이기 때문이다. 또한 IT가 발전하는 나라가 성공할 수 있다. IT가 지식경제를 돕고 지식경제가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주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패널토의III] 박영숙 UN미래포럼 한국대표

미래포럼과 함께 한 것이 29년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드물다. 외국에서는 정부 각 부처에 미래전략



팀과 같은 기구가 있다. 옛날에는 미래가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돌아서면 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것이 테크놀로지 타임라인이다. 언제 어떤 산업이 뜨고 지는지를 예측해 놓은 표다. 미국정부나 호주정부에서는 10년 후에 뜨는 직종, 사라지는 직종을 알려주고 있다. 이제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 국민들은 폭동을 일으킨다. 너무나 신속하게 변하기 때문이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미래이지

과거가 아니라는 것이다.

[종합정리]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

미국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에서 2005년도에 '글로벌트렌드2020'을 발표했다. 그 결론이 다섯 개인데, 오늘 말씀과 일치



한다. 첫째는 글로벌 플레이어다. 정글로 중국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곰이 될지 호랑이가 될지 모른다. 둘째는 글로벌화가 영향을 미친다. 정글이 하나로 터져 언제 순식간에 잡아먹힐지 모른다. 셋째는 정말 국민을 다스리기 힘들다. 지도자의 역할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 넷째는 불안이 증가한다. 전 세계적으로 술 소비량이 증가되고

있다. 다섯째는 생화학, 나노 등의 기술이 활용되어 테러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언제 올지 모른다. 지구온난화로 자연이 테러를 당하고 인간이 테러를 가한다.

앞으로는 인구의 10%가 부의 90%를 차지하는 격차 증가시대다. 종교나 영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세계가 망한다. 기술 발전에 따른 인간의 윤리와 기분을 가르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진다.

창의성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포르테이로 교수가 인간의 4가지 유형을 얘기했지만 나는 그림을 그리는 아이에 비유해 인간의 4단계를 만들었다. 첫째, 어머니가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가지고 와서 '이것과 똑같이 그려라'라고 하는 모방단계다. 이 단계는 정답이 있다. 둘째, 아이가 미대를 졸업하고 나서 '설악산 그림을 화가처럼 똑같이 그릴 수 있어요'라고 하는 개척단계다. 셋째, '저는 우리나라 일류화가보다 설악산 그림을 더 잘 그릴 수 있어요'라고 하는 혁신단계다. 마지막 단계가 피카소처럼 그리는 독창단계다. 독창단계에는 정답이 있을 수 없다.

어떤 한 교수가 학생에게 졸업하고 뭘 할 것인지 물었다. 학생은 유명한 회사에 들어가 열심히 일해서 서른 살이 되면 연봉 1억을 받는 게 목표라고 했다. 교수는 "그러지 말고, 1억원의 봉급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겠냐?"고 말했다. 이것이 비전이다. 우리도 국민소득 10만불을 꿈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재가 중요하다.

피터 드러커 교수는 90세가 넘어서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썼다. 그는 "매 3~4년마다 전공을 하나 정해라. 사업가는 매 3~4년마다 품목을 하나 정해서 프로그 되어라"라고 했다. 우리가 일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인재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오늘 같은 이런 미래포럼을 자주 개최해서 국민들에게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

글·사진-정용달 팀장 dal2020@khdi.or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미래예측과 인류사회의 미래전략

2008년 5월 29일(목)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룸

제롬 글랜 유엔미래포럼 회장



- ▲ 본원은 유엔미래포럼과의 업무제휴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 ◀ 제롬 글랜 유엔미래포럼 회장

우리는 인터넷 경제의 3원칙 가운데 하나로, 마이크로칩의 밀도가 18개월마다 2배로 늘어난다는 '무어의 법칙'을 알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어의 법칙 5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는 쥐의 머리나 곤충의 머리만큼 똑똑하다. 25년 뒤에는 인간의 뇌와 똑같이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25년 뒤에는 제2의 '나'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은 어떤 생명체가 아니라 컴퓨터 속에서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오염과 에너지문제는 동일선상에서 봐야해

2050년까지 우리는 환경문제만 없다면 성공할 수 있겠지만 환경문제는 걸림돌을 안고 있다. 지금도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충분한 방법들은 아니다. 73년에 <Global Warming(지구의 위기)>라는 책을 썼는데, 이때부터 지구온난화에 관심을 가졌다.

미래학자들은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도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미국과 중국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EU가 환경정책을 펴고 있지만 EU만 해서는 10% 정도의 개선 효과뿐이다. 마찬가지로 한국만 잘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하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지구온난화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동안 논란만 벌이고 있다. 이 논란을 걷고 용기와 정책대안을 실현할 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모든 농사가 현재 마시고 있는 물에서만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금물에서 쌀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물 부족 현상은 이미 알려져 있다. 한국도 물 부족 국가로 앞으로 기름보다 물이 비싸질 것이라는 점과 물 전쟁이 일어날 것은 흔히 하는 예상이다.

옥토에서만 식물을 키우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과학으로는 모래나 바닷물에서 식물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가져올 수 있다. 바닷물처럼 소금이 함유된 짎물에서 살 수 있는 식물이 1만종에 달한다. 과학자들은

이 중 100여종의 식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고 있다.

사막이 있는 아프리카 해안에 바닷물이 흐르는 관개수로를 만들고 이들 식물을 재배한다면, 이 수확물로 바이오 연료를 만들거나 펄프로 사용할 수 있다. 동물 사료나 식용으로도 쓸 수 있을 것이다.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환경오염과 에너지문제는 함께 간다. 외국에서는 이산화탄소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 재생에너지가 현재의 화석연료를 대체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액체로 만들어 땅속이나 바다에 묻는 '탄소 격리'가 주목받고 있다. 단지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가 하는 효율성에 대해 연구하는 단계에 와 있다.

한국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미래산업이라며 투자를 하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이 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다음으로 올 전기자동차, 다음으로 연료전지자동차가 있는데, 외국에서는 벌써 연료전지자동차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바꾸면 앞으로 올 효과적인 차량 이용을 15년 연기시키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껏 모든 차가 기름으로 달리다가 전기로 달리려면 그 에너지는 어디서 가져올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전기료가 저렴한 밤 시간을 이용해 충전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에너지원이 태양 에너지다. 일본 정부는 20년 뒤에는 우주태양광발전(solar power satellites)을 만들어 모두 태양에너지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태양에너지를 활용하면 태양광 하나로 전 세계가 먹고 살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

이보다 진전된 기술이 지열발전(geothermal power generation)이다. 지열발전의 장점은 환경오염과 상관없이 24시간 가동된다는 것이다. 이미 MIT에서 초기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한국에 도착하니 시청 근처에서 한국인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때문이었다. 미래학자들이 예측하기를 20년 뒤에는 아무도 쇠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지금 먹는 것은 소의 근육을 말하는데, 이 근육을 최고급의 육질로 만들어 짝어내는 기술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광우병 걱정으로 미국 쇠고기는 안 먹고 한우는 먹는다는 걱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동물성 단백질을 얻게 되면 소, 돼지 등을 키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물, 사료, 분뇨 등이 사라진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묘책이 되는 것이다.

집단지성으로 미래문제 해결해 나가야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 하나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집단지성은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경험과 두뇌가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적절한 대응책을 낼 수 있기에 아주 중요하다. 에너지문제와 기후

문제가 심각하네, 앞으로는 에너지, 기후와 관련된 산업이 높은 수익을 내게 될 것이다. 이제 국가적으로 어떤 기술이 나타나는지를 인지해 집단지성을 만들어야 한다. 문제해결을 위한 위키피디아(Wikipedia)처럼 전 세계 지성이 한데 모여야 한다.

미래는 가능성이 많다. 25년 전까지 개발되었던 내용과 앞으로 나타날 25년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 그러나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25년 뒤가 아니라 당장 몇 년 뒤에 실행될 수 있는 것들이다. 농경 시대에는 도시가 이렇게 커질지 상상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사이버공간이 얼마나 커질지 상상하지 못한다. 앞으로 모든 활동을 사이버공간에서 할 것이고, 그곳에 돈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볼 때 화면은 픽셀(pixel)로 구성된다. 100만 화소의 픽셀은 2D로 평면이다. 그런데 20년 전에는 너무 고가여서 사용하지 못했던 그러나 지금은 저렴한 박셀(voxel)이 곧 나온다. 이것은 3D 형태다. 사이버공간에서 평면을 보다가 3D로 보면 실물보다 더욱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인다. 그래서 앞으로는 화면을 보고 실물은 보지 않게 된다. 기업들은 손님을 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상행위는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4~5년 뒤에는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박셀 갤러리에 들어가 3D 공간을 보며 생활하게 되고, 사람들의 70%가 사이버공간에서 생활할 것이다. 사이버공간은 몇 년 안에 순간으로 다가올 것이다.

수명연장기술 성공단계 와있어

출산률 저하 시대에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수명연장이다. 이를 도와주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DNA가 RNA로 가서 단백질이 되며, 인간이 된다. 우리 몸의 DNA구조 끝에 '텔로머어'라는 조직이 있다. 텔로머어가 DNA의 건강을 결정하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노화현상이 나타난다. 모든 과학자들이 텔로머어가 노화하지 않고 계속 확장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성공하고 있다.

전 세계에 66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UN의 자료에 의하면 2050년이 되면 90억 명으로 최고에 달하다가 갑자기 50억 명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그 다음은 36억의 인구수를 가지게 된다고 예측하고 있다. 2050년이 되면 절반 이상이 고령의 노인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노동력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농경시대에는 농사만 지었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 필요 없었고, 산업 시대에는 공장에서 똑같이 짝어내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 필요 없었다. 그러나 지식경제시대에는 엄청난 지식을 필요로 한다.

지금 국가들은 지성이 뛰어난 인력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있다.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연구소, 기업, 단체들에서 집단지성을 연구하고 두뇌를 연구하고 있다. 이제 미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

글 · 사진-정용달 팀장 dal2020@khdi.or



리더십을 공부하는 과학자
 공식 순서
 1. 인사말씀 : 문유현 원장
 2. 참가소감문 발표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대 덕연구단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부다. 이곳에서 지난 3월 중순부터 매주 월요일 10개 연구기관의 원장과 간부 20명이 참가하여 'LMI의 행복한 자기혁신 리더십'을 주제로 8주간의 리더십과정이 진행되었다. 필자는 그 동안 기업, 대학, 연구원에서 주로 인문경제사회과학을 담당하는 리더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왔기에 과학자들과 리더십을 통해 본격적인 만남을 가진 것은 처음이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리더십과정

참가자들 역시 리더십 교육을 개인적으로는 받았지만 연구기관들이 연합하여 참여하기는 최초라고 한다. 이는 과학기술부가 산하 연구원들의 효율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지난 해 12월 연구개발인력교육원을 설립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고, 그 일환으로 이 교육이 실시되었다.

문유현 초대원장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대덕단지 연구원에서 리더십의 부족으로 연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최고경영자와 간부들을 위한 리더십 과정을 개설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과정 첫날 참가자들도 "이런 저런 교육을 받아 보았지만 행복한 자기혁신 리더십(Effective Personal Leadership: EPL)이란 주제로 먼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리더십은 처음 접해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굳은 각오를 나타냈다.

목표설정과 점검 노력이 성공 노하우

필자는 EPL과정의 기본 방향을 설명한 후 박수치기와 적자생존의 철학을 강조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과학자들은 발표가 있을 때마다 박수치는 것을 처음엔 무척 어색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박수의 묘미에 빠져들면서 재미있고 열정적으로 학습에 참여하였다. 또 적자생존은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뜻으로 참가자들은 교육기간 내내 단원마다 베스트 아이디어와 목표설정표를 비롯한 각종 과제물을 적어내는 노력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 주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굿 뉴스(good news) 시간을 갖고 1주일 동안에 생긴 좋은 소식들을 나누게 함으로써 수업시간의 딱딱함을 몰아내는 청량제 역할을 해주었다. 한국기계연구원의 최병익 선임연구본부장은 교육기간 중 훈장을 받아 큰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참가자들은 매주 주간목표를 개인용과 업무용을 구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여부를 1주일 뒤에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EPL에서는 성공을 "가치 있는 목표를 미리서 설정하고 그 목표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목표를 자기 스스로 세우고 점검하는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송미영 단장은 "주간 부서회의 때 단순한 업무보고를 대폭 줄이고 교육받은 내용을 전달하는 시간으로 바꾸었다. 부서원들에게 목표를 세우게 하고 숙제 내용도 공유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발표도 하게 함으로써 실제 교육에 참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생

각하고 글로 쓰고 말하는 것으로 인해 스스로 깨닫는 시간이 되어 개인적으로나 부서원 각자에게 큰 소득이 있었다"고 평가한다.

꿈의 목록과 감사리스트 작성으로 삶의 가치 느껴

토론시간 역시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꼈으나 횃수를 거듭하면서 내면의 이야기를 나누며 진지한 토론의 장으로 변화되어 갔다. 자신의 경험들을 진솔하게 쏟아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서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자신의 약점인 4분씩 이야기, 조직의 강점 20가지, 부하직원과 가족 칭찬하기, 경쟁과 커뮤니케이션 등의 주제와 과제도 적어보았다. 매주 수업을 끝낼 때 폴 마이어 회장의 성공철학, 100만 불의 성공계획, 다짐을 함께 읽으면서 반복효과를 체험하도록 했다. 꿈의 목록을 작성하고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의 꿈과 소망 세 가지씩을 적어보면서 참가자들은 스스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년 퇴직 후에는 조용히 은자로서 살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0년 후까지의 꿈과 소망을 글로 직접 기록해 봄으로써 가슴이 뛰는 기대와 설렘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밝힌다.

감사리스트를 가정, 건강, 경제, 사회, 지적, 정신면의 6대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마다 10개씩 적어보는 것도 감동을 가져다주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정광화 원장은 "감사리스트 60개를 쓰라고 해서 난감했는데, 숙대 이경숙 총장의 샘플을 보며 작성해 보니 순식간에 채울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조용승 소장은 "차분하게 자신과 가정과 직장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내가 어떤 사람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등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었다. 우리집 가훈인 정직과 성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삶의 철학으로 심오한 사고, 정확한 판단, 굳건한 신념, 과감한 실천 등 네 가지를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수료식 때는 참가자 전원이 사명선언서와 참가소감문을 낭독하여 숙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성실과 실력이 탄탄한 과학자들이라 손수 작성한 소감문도 진실 되게 읽어 내려감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실천 중심의 프로그램 통해 리더십교육 중요성 깨닫는 계기

MBA과정을 마칠 정도로 리더십에 관심이 많은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의 이상기 원장은 이번 교육을 마치면서 참가 소감을 이렇게 밝힌다.

"LMI의 EPL 교육 내용은 그동안 내가 접해 왔던 많은 유사한 교육 과정과는 내용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 리더십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과 방법을 일방적인 강의 위주로 설명하는 다른 교육 과정과는 달리 EPL에서는 실천 지향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 특히 칭찬, 박수, 발표, 적자생존을 통해 글쓰기와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고 과제물의 부과, 결석시 다른 동료 수강자로부터 보충 수업을 받게 하는 강사제도의 도입, 강의가 끝난 후 이메일을 통해 진도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교육 수강자들에게 적당한 부담감을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독특한 수업방식도 학습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적절한 긴장감과 책임감을 유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법이었다."

원래 16주가 걸리는 리더십 과정을 8주로 단축하여 진행된 이번 교육은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최측인 연구개발인력교육원의 철저한 지원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유현 원장은 "모든 참가자들이 바쁜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어서 너무 고맙다. 이번 교육을 통해 리더십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본 교육과정은 단순히 참여한 소수의 몇 사람에게 국한하지 않고 교육 참여자를 통해 각 기관, 부서, 조직으로 널리 퍼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한다.

순수와 열정으로 똘똘 과학자들이 리더십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대덕연구단지야말로 선진국 진입의 견인차이며, 이곳에서 노벨상을 타는 과학자들이 탄생하리라는 기대와 함께 대한민국의 또 다른 희망을 볼 수 있었다. **▶▶▶**



변화의 시대,

창의와 감성으로 만나는 새로운 도전 양양군 전직원 워크숍



지난 4월 22일~29일 양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대명 쉼비치리조트에 양양군청의 전직원 464명이 모였다.

양양군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스스로 일깨우며 발전해 나갈 때 서로의 믿음이 다져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재창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추진된 이번 전직원 워크숍은 1박 2일씩 총 3회에 걸쳐 운영되었다. "변화의 시대, 창의와 감성으로 만나는 새로운 도전"이라는 도출과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마음을 담은 아름다운 화음과 상하직원의 숨결 속에 피어나는 창의적 모습에서 양양군의 비전을 엿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원부서와 산불예방·영농준비·사업발주 등 일반직과 계약직 구분 없이 전원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여준 교육이었다. 각계를 대표하는 강사진으로부터 앞으로 공직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 만들기를 함께 고심해 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특히 새로운 예술적 체험으로 전직원이 하나되는 아카펠라 배워보기와 가면 만들기 프로그램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화합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공직자들에게 기본과정인 CS과정은 고객만족 전문가를 통해 고객의 심리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등 교육 전반에 걸친 만족할 성과를 거두었다고 양양군은 이야기한다.

정부의 중점과제인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 실현을 위해 공직자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세와 소양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군민을 섬기는 파트너십으로 군정을 이끌며, 작지만 최고수준의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헌신적이고 창의적 사고를 함양하는 좋은 기회였다는 평가를 받았던 워크숍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첫째**



▲ 창조경영과 섬김 리더십

-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박수치는 리더십, 왜 창조경영인가? 논어에서 배우는 창조 리더십, 섬김 리더십과 victory 리더십

- 한근태 한스컨설팅 소장

어떻게 하면 즐거움과 생산성을 두 배로 올릴 것인가? 고객만족과 역지사지, 일이란 무엇인가? 고객은 사소한 것에 분노하고 기뻐한다,

▲ 감성이 고객을 춤추게 한다

- 박영실 서비스파워아카데미 원장

고객만족, Win-Win의 원리, 플러스사고

- 지승룡 민들레영토 사장

위기는 마침표가 아니다, 고객과 함께 어울려라, Mother Marketing, 뽀뽀한 경영(Fun&Fun and Fund)



▲ **공직자 역량강화**

- 김광웅 시사HN 대표, 서울대 명예교수

21세기 지식융합시대의 공직자의 역할과 마인드 - 현 정부의 성격·상황·패러다임, 바른 정부의 역할

- 허성관 前 행정자치부 장관

지구촌시대 공직자의 자세 - 지구촌시대의 특성, 공직자의 자세, 혁신과 생존의 방식

- 박명재 前 행정자치부 장관

의지와 열정으로 일구는 창의와 혁신 - 왜 혁신인가? 혁신의 실천을 위한 제언, 지방행정혁신에 대하여, 변화와 혁신을 위한 걸림돌의 제거 및 디딤돌의 구축



▲ **공동체의식 함양**

- 뮤직버튼 A-Seed

멋진 화음의 A-Seed 공연과 화음과 리듬을 익히는 파트연습, 그리고 조별연습과 발표의 시간을 통해 끈끈한 팀워크를 보여준 프로그램

- 아트 앤 마인드 Who am I?

영화로 보는 타인의 이해, 가면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서로를 배려하는 예술적 감성을 키우는 프로그램

- 양양가족 대화의 밤

민들레영도 정우정 실장과 댄스팀들의 공연을 시작으로 양양 불우이웃을 돕는 옥션노래방에서 이진호 군수님을 비롯한 양양식구들은 숨은 끼를 발산하면서 서로의 화합을 다짐하는 축제의 시간을 즐겼다.



▲ **양양 희망나무 만들기**

Q : “나는 이 교육에서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 “양양의 미래비전을 위해 내가 바로 실행할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변화 한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

1%만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지금보다 1% 긍정적 사고를 한다. 지금보다 1% 더 친절하게 상대를 대하자. 지금보다 1% 솔선수범 하자.

행복한 이웃, 배려하는 삶, 도전하는 용기

칭찬과 격려를 이끼지 말고 베풀자. 상사와 부하간 모두 열심히 경청해야 할 교육이다. 우리 모두 의식부터 바꾸자.

두려움 없는 끊임없는 도전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긍정의 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긍정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동해안 최대의 관광휴양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도시 만들기.

타인을 배려하는 것을 배우겠다. 한 접시의 소금이 되겠다.

창의력 향상 및 조직과의 협력,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함께 가지고 가는 것.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확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솔선수범하는 내가 되자. 주도적인 사람이 되자!

일보다 마음으로 다가가는 공무원이 되고, 지역의 모든 문제를 나에게서부터 생각하며 애정과 관심을 가지며 노력해 나가자.

창의적인 사고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꿈이 이루어지는 날 까지 노력한다.

즐겁고 활기찬 나 자신을 통한 행복바이러스 전파

직원과 평소 하지 못한 대화를 하고 싶다. 지역주민에게 공무원이 하면 신뢰가 간다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싶다.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진정한 지식이 아니며, 실천 속에서 진정한 지식과 감동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의: 교육총괄기획 장소영 차장 070-7500-9511



제73회 진안군 '진안마이학당' 5월 22일(목)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오지철 한국관광공사 사장



2006년 개강해 매주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진안마이학당'은 본원과 진안군(군수 송영선)이 정보화·세계화·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주민들에게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폭넓은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도 본원과 진안군은 각계의 경륜있는 강사들을 초빙하여 마이학당이 도덕적 가치관과 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명사초청특강에서는 지난 5월 22일 제 73회 강연을 해주신 오지철 사장의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리 · 최용준 jun@khdi.or.kr

일반적으로 국내총생산(GDP)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0% 정도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관광 대국은 국내총생산량에서 관광산업의 비중이 아주 높은 국가들이다. 인도양의 몰디브(Maldives)라는 섬나라는 젊은 부부들이 신혼여행지로 많이 찾는 곳인데, 산업이 관광밖에 없다. 한국의 경우 4% 정도로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관광산업이 초기단계에 있다. 이는 곧 성장가능성이 높다고도 할 수 있다.

세계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

관광산업은 고용의 큰 효과를 나타낸다. 가장 많은 고용을 일으킨다는 제조업의 2배가 넘는 유발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미 고용이 거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관광산업을 진흥시켜야 할 이유가 있다. 한국이 속해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전 세계에서 관광산업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진안군도 관광산업 진흥에 많은 가능성이 있다.

관광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기복이 없고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다. 그리고 관광산업은 광범위한 융·복합 산업이기 때문에 관광산업이 잘 되는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경제, 문화, 국민의 의식수준 등이 매우 높다.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모두 문화적,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다. 경제발전과 동시에 한국에도 관광객이 더욱 많이 늘어날 것이다.

지난 1995년부터 2007년까지의 방한 관광객 성장률의 통계를 내보았다. 한국의 경우 4.6% 인데 이것은 전 세계 평균인 4.1% 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균 6.6%에는 미치지 못했다.

작년의 통계를 보면 645만 명이 한국을 방문했고 일본, 중국, 미국, 대만 등 상위 4개 국가는 전체 방한시장의 65.5%를 차지했다. 그런데 외국인 한 명이 한국에 올 때 한국인 2명이 해외로 나갔다. 작년 관광수지적자가 100억불이 넘었다. 자국민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국민의 여행 횟수는 2007년 통계에 따르면 국민 한 명당 8번 정도라고 한다. 8번의 여행을 가는 국민을 한 번이라도 진안군으로 오게 만드는 것은 앞으로 진안군청과 공직자, 군민들의 협조에 달려있다. 자국민의 90%가 여행경험을 가지고 있고 국민 한 사람이 하루 여행을 갈 때 1명으로 보는 통계에서 국민 관광의 이동총량은 5억 명 정도이다.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차별화 이뤄야

평소에 체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관광의 핵심이다. 진안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무엇을 느끼고 체험하게 할 것인가? 그것은 음식, 별자리 탐험, 청정 계곡을 체험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관광이 지역에 기여하는 형태는 첫째 해외, 외지 관광객의 방문이 많아짐에 따라 식품업, 숙박업, 상품판매업 등의 직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둘째는 지역사회의 개발을 촉진하고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을 도모, 환경정비, 지역이미지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관광이 잘못 개발되거나 제대로 추진이 되지 못할 경우 아름답고 쾌적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계 파괴, 관광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소득분배의 불균형, 전신평과에 대한 소비증가, 도덕적 해이, 지나친 상업화와 시장 지향적 인간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역특화란 자신의 고장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관광자원,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객에게 알리고 관광객이 찾도록 만드는 것이다. 관광과 지역 특화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진안이 무주나 장수나 다른 점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진안까지 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진안에 오면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체험 할 수 없는 것을 진안에 오면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도록 다른 지역과 차별화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관광의 핵심요소이다. 관광객으로 하여금 색다른 체험과 편안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역특화의 개념이다.

지역특화는 여러 가지가 있다. 진안군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문화재, 진안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 전통 등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덴



▶ 오지철 사장이 진안마이약당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 있는 인어공주, 라인강에 있는 로렐라이 언덕, 벨기에 수도에 있는 오줌싸개 동상 등은 불과 70~80년 전에 만든 조각품일 뿐이고, 직접 보면 별 것 아니지만 이것들이 홍보효과를 가진다. 두 번 찾지는 않지만 그것을 보기 위해 새로운 관광객이 몰려드는 것이다. 이것은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인공적, 자연적인 것을 개발하여 그것을 상품화 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참여이다. 관광은 관광농원, 농어촌 형태의 휴양 단지 등 형태와 상관없이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발전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앞에서 무조건 이끄는 것이 아니라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또한 지역 주민의 의식이 변해야 한다.

자연을 활용하는 지역특화

가장 일반적인 지역특화로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환경, 그 지역의 특별한 자연을 활용하는 것이다. 해남에 가면 공룡화석을 관광지로 활용하고 있고, 갯벌을 활용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진안군의 경우 자연휴양림도 가능성이 있다. 진안군에서는 자연휴양림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담양, 함양과 나란히 진안의 휴양림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본 후쿠이현 서부에 위치한 나타사우무라촌은 진안군 1/10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는 전형적인 시골이다. 이 마을은 지역특산물을 개발하고 판매해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주민의 자립심이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 또 토야마현 도가무라촌도 비슷한 유형인데, 이 마을은 다양한 테마를 구성하고 홍보해 마을 인구의 1000배가 넘는 100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들였다.

산업을 이용한 지역특화

춘천은 애니메이션, 부산은 부산국제영화제, 대전은 게임 등으로 관광객들을 모으고 있다. 유명한 복합테마파크로는 디즈니랜드가 있다. 이것은 세계 최초의 복합형 리조트인데 우리나라에는 롯데월드, 에버랜드, 서울랜드 등이 있다. 근래에 복합형 리조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비슷한 것이 이웃도시에 생길 때 과연 이것이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일본 동경시내 예전 방위청 건물 자리에는 미드타운이라는 대형 복합건물이 있다. 이곳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 한 장소에서 식사, 수면, 쇼핑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거대한 빌딩에 53개의 음식점이 있고, 다양한 가격대의 명품은 물론 싸고 좋은 물건도 많다. 이것이 유행이 되어 5년 후에는 많은 복합형 리조트가 생길 것이다. 하지만 과하면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진안의 역사는 2000년이 넘었다. 삼국시대부터 진안은 현으로 존재했고, 후백제 때 지금의 이름으로 굳혀졌다. 사찰, 향교, 불모, 황희정승의 영정을 모신 곳 등 문화자원이 많다. 최근 템플스테이가 주목받고 있는데, 템플스테이란 스님들과 같이 지내면서 산사 체험을 하는 것으로 서양 사람들이 아주 좋아한다.

만일 진안군의 사찰이 숙박시설을 갖추게 된다면 관광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찰에서 다도, 참선, 설법 등을 체험하고 조용한 산에 들어가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또한 진안 고랭지에서 재배된 특산물이 홍보가 된다

면 이들로 준비한 먹거리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일본에 가는 목적 중 하나가 일본의 음식이다. 그리고 소핑이 있는데, 다양한 명품을 사러 가는 것뿐 아니라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진안에서만 살 수 있는 것이 있거나 다른 지역보다 싸고 깨끗한 상품을 진안에서 살 수 있게 되면 이 역시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온천을 활용하는 지역특화

온천이 중요한 이유는 숙박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외국 관광객의 수가 적지만 관광 수입은 우리나라의 2배다. 이유는 필리핀에 가는 관광객들이 장기 체류를 하기 때문이다. 관광이 진안 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관광객으로 하여금 오래 머물게 해야 한다. 이를 보완하려면 숙박, 음식, 쇼핑 등의 숙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 진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 한국에서 제일 깨끗하고 자연이 살아있는 곳이라는 점을 관광상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온천은 외국의 스파와 비슷한 개념인데, 치료를 겸하고 미용 등이 가능한 곳이다. 요란하지 않으면서 자연 경관과 어우러지게 하고, 들어오면 마음이 편해져서 떠나고 싶지 않도록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계속 오도록 유도하고, 오래 머물게 만들어야 한다. 반복적으로 방문해서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관광의 문제는 해외 관광객들이 두 번 찾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반면 일본은 계속 찾게 된다. 이것을 배워야 한다.

산과 사찰을 활용한 지역특화

산악지 개발 방법으로는 미국의 아스펜이라는 마을이 좋은 모델이다. 미국 아스펜은 원래 탄광지역이었으나 석탄산업이 사양화되면서 더 이상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하자 탄광을 폐쇄했다. 그 후로 아스펜 사람들은 사계절형 산악을 활용하여 관광지로 변화시켰다. 겨울에는 스키, 여름에는 음악캠프를 열어 사시사철 미국 전역에서 관광객이 몰리게 한다. 진안 역시 한국의 아스펜이 될 수 있다.

매년 백담사에 50만 명이 방문한다. 그런데 작년엔 12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백담사 사찰 하나에 50만 명이나 다녀간 이유가 뭘까? 만해 한웅 선생이 출가한 사찰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2년 가까이 머물면서 유명해져서 관광객이 몰려드는 것이다. 진안에 있는 사찰도 신라시대나 백제시대, 고려시대의 사찰이 있으니 스토리를 잘 엮어서 제2의 백담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우리나라의 불교는 역사도 오래되고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훌륭한 사찰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사찰을 알리지 않는다.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찰을 보고 "이렇게 좋은 곳에 멋진 사찰이 있더니 놀랍다"고 하면서 매년 찾는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33개의 관음사찰을 정해서 그 사찰을 모두 순례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일본 불교 신자들에게 어필해서 금년에 2천명이 다녀갔다. 그런데 일본에는 이런 신자들이 아직 80만 명이나 있다고 한다. 우리가 좀 더 홍보를 한다면 관광산업은 더욱더 발전할 것이다.

축제를 활용한 지역특화

세계적인 축제 중 유명한 것이 독일 뮌헨의 맥주축제다. 10월이면 독일

전역에서 생산한 맥주를 어마어마한 통에 담아서 뮌헨으로 모이는데, 독일 국민은 물론 전 세계에서 모인 관광객들에게 아주 싼값에 맥주를 제공하고 안주를 판다.

우리나라에도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축제가 여러 개 있다. 보령머드축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인 축제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경우 실제 지역민들이 축제로 인한 소득을 실감할만한 정도가 못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축제의 문제점이 서로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이다. 보령머드축제와 금산인삼축제를 비교해보면 진흥과 인삼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축제기간 중에 벌어지는 프로그램에 차이가 별로 없다. 차별성이 없을 경우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지역의 문화관광이 경쟁력을 가지고 활성화되려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의 정체성이 필요하다. 관광은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만의 몫이 아니다. 서비스 마인드가 지역의 자산이 되어야 한다. 셋째, 체류를 할 필요가 있다. 외지사람 중 진안만 보고 가는 사람은 드물다. 온 김에 무주도 들리고 장수도 들리곤 한다. 세 지방을 다 보기 위해서는 2박 3일이 필요하다.

넷째, 타겟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장애우를 주요 고객으로 설정해 장애우들에게 '지내기에 가장 좋은 곳이 진안이다'라고 알려진다면 전국의 장애인과 그 가족이 진안으로 올 것이다. 다섯째, 관광 소비자, 수요자의 입장에서 발상이 필요하다. 접근성을 향상시켜서 편하게 오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여섯째, 가격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단기간으로 보고 비싸게 팔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은 절대 이익이 아니다. 진안에 오니 좋고, 싱싱한 상품을 싸게 사서 좋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홍보를 잘 해야 한다. 지역출신 연예인이나 외지사람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 진안군이 관광에서도 크게 성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진안군의 수준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오늘 그 가능성을 봤다. 군수님과 진안군 공직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의지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김세**

오지철 사장

1949년 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체육회 국제과장, 문화체육부 국제체육국장,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 문화정책국장, 기획관리 실장, 차관 등을 역임했다.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대통령 정책특보 등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용서와 사랑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지 금 이명박 대통령의 마음속엔 어떤 상념들이 출렁거리고 있을까? 혹시 배신 불신 미움 절망 좌절... 등의 언어들 이 그려 주는 인간관계의 어두운 그림자가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지는 않을까? 압도적인 표 차로 대선에서 승리하고 온 국민의 기대와 열망에 보여주었던 그의 희망찬 얼굴빛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음을 모든 언론들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추락이 끊어어 보인다. 하지만 아직 멀었다. 완전히 별거뽀고 바닥의 바닥까지 더 내려가야 한다. 허튼 날갯짓이나 괜한 발버둥을 칠 필요도 없다. 깨끗하게 바닥을 쳐라. 그래야 다시 일어선다. 소싯적에 바닥 친 경험으로 얼버무리거나 바닥 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이 되레 문제다. 과거의 성공신화, 청계천의 녹슨 훈장도 죄다 내 던져라. 자만과 독선일랑 땅에 파묻고 맨땅에서 다시 할 각오를 해라. 그래야만 한다. 바닥 치면 무서울 게 없다. 세상에서 가장 센 것은 바닥 친 사람이니까."

명 칼럼리스트인 중앙일보 정진홍 논설위원은 그의 '소프트파워' 칼럼에서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이 처한 상황을 그려주고 있다. 그가 용감한 언론인으로서 직설적인 충고를 해주고 있음에 동감한다. 과연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의 시련과 도전을 극복할만한 숨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 아침(6월 16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꼭 성공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용기와 신앙과 비전을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

'용서와 사랑, 그리고 인간'을 생각해 본다. 인간은 왜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가. 그리고 사랑과 용서가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덕목인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하지만 창조주가 우주 창조의 과정에서 맨 나중에 창조주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성서는 말해주고 있다. 수많은 생명체들, 그리고 동물들 가운데 가장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왜 창조주는 그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면서 끝없는 욕망을 갖게 하여 그 욕망 때문에 범죄하고 때로는 창조주에게까지 대항하며 방자한 삶을 살게 인간을 허락했을까. 하여간 인간은 동물들과는 다르게 만들어져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미지의 존재이면서도 욕망 때문에 매우

불완전한 존재인 것만은 사실이다.

우리가 깨닫고 있듯이 미완성의 존재인 인간에게 있어서 믿음 소망 사랑은 절대로 필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65억의 인구가 있다. 최근 중국 쓰촨성의 지진과 미얀마의 사이클론으로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지만 지구촌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빈곤과 질병, 미움,

걱정, 근심, 죽음에 대한 공포, 갈등과 대립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용서와 사랑이다. 용서와 사랑은 불행한 인류를 구원해 내는 힘이 있다.

'미국산 쇠고기 열풍'이 MB정부를 더욱 불안케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정적을 바탕으로 한 용서와 사랑밖에 없다. MB정부가 내세운 '섬김의 리더십'이 빛

을 발하고 생명력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용서와 사랑의 깨끗한 마음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용서와 사랑의 힘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고도 남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을 그리고 있을 때, 그는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을 배신자 가롯 유다의 얼굴과 같게 그렸다고 한다. 작품 속에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을 그려 그림과 함께 영원히 보여주고자 애써 그리려고 하는 중에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최후의 만찬'의 중심인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그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려지지 않았는데, 마침내 그의 적 즉,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고 낫더니 예수의 상을 완성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미워하는 원수의 모습을 지워버리고 나니 바로 그 자리에 예수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라 그날 밤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의 그리스도상을 완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용서와 사랑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역사적인 천재 화가로서의 잠재능력을 완전하게 발휘케 해주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용서) 사랑하라"는 예수의 교훈이 그의 마음속에 살아나 작동했던 것이다.

용서와 사랑은 무한한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끝없는 욕망을 가진 불완전한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 회복하게 하는 힘을 제공해 준다. 진리란 면데 있지 않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바로 우리의 마음속이다.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꿀 때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으로 하여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김기현**





회원 & 연구원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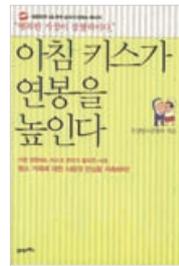
회원 소식

- **기업은행(윤용로 은행장)**은 충남 태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원초교와 의향분교 학생 40여명을 서울로 초청해 3박 4일 일정으로 견학 행사를 개최하였다. 윤용로 행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돈의 소중함과 은행의 역할'에 대해 강의한 후, 환영행사를 가졌다.
- **정형식 일양약품 명예회장이** 지난 5월 23일 (사)한국전문경영인학회가 제정한 제1회 한국창업대상을 수상했다.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이날 시상식에서 수상심의위원회는 "정 명예회장은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창업기업인으로 비전경영 창조경영 사회책임경영 정도경영 신뢰경영을 몸소 실천해 일양약품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실현시킨 존경받는 기업가"라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 **GE코리아(황수 사장)**와 게일 인터내셔널 코리아(유규홍 대표)는 지난 5월 27일 'GE데이(GE Day) Korea 2008' 행사 설명회에서 게일 인터내셔널 스탠게일(Stanley C. Gale)회장과 GE의 에코메지네이션 총괄 로레인 볼싱어(Lorraine Bolsinger)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GE의 에코메지네이션 제품 및 관련 솔루션을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에 제공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장영주 화가**는 지난 5월28~6월3일까지 '한국의 정신적인 氣 그림으로 말하다' 라는 주제로 인사아트센터 2층에서 3년 만에 국내 개인전을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 **대우인터내셔널(강영원 사장)**은 YMCA와 공공으로 해외의료봉사단을 구성하여 미얀마 사이클론 '나르기스'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이재민 의료지원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2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발대식을 갖고 1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미얀마 랑타야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 **김용복 한사랑농촌문화재단 회장은** CBS(TV와 라디오)채널의 "새롭게 하소서란 코너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라"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지난 6월 17일, 18일에 방송되었다. 메마른 땅에 녹색혁명을 일으키며 주님이 주신 단을 기쁨으로 거두고 현재 70만평의 쌀농사를 지으며 수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참된 가치와 감사에 대한 간증의 내용을 담았다.
- **김홍식 전 장성군수는** 공무원을 대기업 회사원처럼 바꾼 '김홍식의 리더십'을 소개한 책 <모두를 리더로 만든 CEO 군수, 김홍식 리더십>(비



전과 리더십)을 출간했다. 지방자치의 성공작이라 불리는 장성군의 스토리는 한 기업인 출신 군수의 변신과 개혁이야기가 바탕으로 김홍식 전 군수가 그 주인공이다. 저자는 책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며,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라는 신념과 함께 창의와 집념으로 이름 없는 한 시골을 전국이 주목하는 혁신도시로 만든 리더의 마인드를 소개하고 있다.

- 국내 1호 부부 강사 **두상달(칠성산업㈜ 사장)·김영숙** 가정문화원 원



장의 <아침 키스가 연봉을 높인다(부제 - 행복한 가정이 경쟁력이다)>가 21세기북스에서 출간되었다. 이번 도서는 부부학 강사 20여 년의 경험을 정리해 낸 부부 지침서로 7부 70개의 주제별 에피소드와 권태기에 접어든 부부들을 위해 주제별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부부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나, 막 결혼생활을 시작한 부부들에게 유용한 '가정 행복 찾기'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 **조천제 블랜차드컨설팅그룹(주) 대표**는 새로운 도서 <섬기는 기업문화가 경쟁력이다>(단 J. 샌더스 지음/조천제 역. 비전과 리더십)을 출간했다. 저자는 스타벅스, 구글, 쉐컴, 시스코, 사우스웨스트 항공 등 잘 되는 기업, 출근하고 싶은 직장의 성공 비밀을 들려준다.



- 본지 "좋은사람 좋은세상" 창간에 큰 역할을 했던 **최노석 서울시관 광협희 상근부회장이** 나를 일으켜 세워 성공으로 이끄는 5단계 기



적 방정식을 소개한 책 <내 안의 1%가 기적을 만든다>(갈매나무)를 출간하였다. 저자는 누구도 안 된다고 단언한 일을 보란 듯이 성공시켜 세상을 놀라게 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성공의 특별한 비밀을 찾아 '5단계 기적 방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 **자녀분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여호영 지아이에스(주) 대표이사**의 장남 성갑군의 결혼식이 지난 6월 14일 GSE타워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권오범 신성월드(주) 사장**의 장남 권혁군의 결혼식이 지난 6월 21일 JW메리 에트호텔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주)삼아테크	한승우 대표이사	7월 1일
월간 골프가이드	강민지 대표	7월 1일
일양약품(주)	정형식 명예회장	7월 1일
(주)반포텍	최계순 사장	7월 1일
眞德建設(株)	차영준 회장	7월 4일
삼보주단	윤중후 사장	7월 5일
(주)다비육종	윤희진 사장	7월 5일
우드뱅크	전창윤 회장	7월 5일
(주)태창플랜트	송언기 회장	7월 7일
(주)서울문화사	심상기 회장	7월 7일
(주)이투엑스포	이재원 고문	7월 10일
(주)우미토건	김영길 대표이사	7월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최민형 상무	7월 15일
KCTC	신태범 회장	7월 20일
(주)에어랩	황진수 대표이사	7월 21일
일우선박(주)	서정권 회장	7월 27일
새한신용정보(주)	지광윤 회장	8월 1일
센테일러	우덕성 사장	8월 1일
기업은행	윤용로 은행장	8월 1일
비즈컴	조영상 사장	8월 1일
농업법인조인주식회사	한재권 사장	8월 2일
영우통상(주)	양대길 회장	8월 14일
(주)수성	김정배 사장	8월 15일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	8월 15일
Big Dream & Success	공한수 사장	8월 27일

회원님의 경조사나 활동사항 또는 귀사의 주요행사, 신제품 출시, 기타 변경사항 등을 알려주시면 회원소식지 또는 단체팩스 및 "좋은사람좋은세상" 등에 게재하여 널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회원소식 : 정성숙 과장 ssj@khdi.or.kr
- 월보원고 : 정용달 팀장 dal2020@khdi.or.kr
- 홈페이지 : www.khdi.or.kr
- 전 화 : 070-7500-9500 · 팩 스 : 2203-1974

신규회원

(●법인회원 ■개인회원)



- **권용문** 서린바이오텍 대표이사
· 주 소 : 수원시 구운동 903-13 미래빌딩4층
· 전 화 : 031-291-2485 · 팩 스 : 031-291-2487
· 홈페이지 : www.seoulin.co.kr



- **신진수** 신일대학교 재단 이사장
· 주 소 :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 1206호
· 전 화 : 02-708-0123
· 팩 스 : 02-708-0120



- **유혜선** SM컨설팅 대표
· 주 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7-14 이즈타워 1103호
· 전 화 : 02-6408-6992 · 팩 스 : 02-6408-6992
· 홈페이지 : www.sunnyyoo.com

연구원 소식

• **[회원친선의 날]**

박청수 (사)청수나눔실천회 이사장 '삶의 이야기가 있는 집'으로의 초대
제149회 경영자연구회 강사로 인연을 맺어 본원 회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박청수 교무께서 지난 6월 27일 의미 깊은 장소로 회원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세계 55개국에 원불교의 교역자로서 자비의 행적을 일군 박청수 교무의 50년 행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관을 관람한 참석자들은 박청수 교무께서 준비한 오찬을 함께 하며 오랜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탈북청소년 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탈북청소년들을 직접 만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날은 모두 4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청해주신 박청수 교무님과 참가해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본원 양병무 원장이** 집필하여 베스트셀러가 된 <감자탕교회 이야기>가 대만에서 馬鈴薯湯教會(Happy Church Story)란 제목으로 발간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 **본원 사무실 이전 안내**

- 이전일자 : 2008년 5월 24일(토)
- 이전주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6-4 동성빌딩 202호
- 대표전화 : 070-7500-9500 · 팩 스 : 02-2203-1974

※ 화환은 정중히 사절합니다.



아름다운 변화(A beautiful change) - EPL워크샵에서 만난 사람들

성공과 행복은 그것을 꿈꾸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과 행복은 꾸준하게 스스로 변화를 실천하는 사람에게 미소를 보낸다. 나는 성공과 행복을 찾아가는 인생향해 과정에서 최근 한국LMI의 EPL리더십 과정을 만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만난 멋진 분들을 통해 인생의 참 맛을 느낀다. 참가자들은 상호 존중하고 스스로 긍정적 태도로 변해가면서 참가자 상호간 영향을 미친다. 모두가 행복해 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 정말 '아름다운 변화(A beautiful change)'다.

인간은 누구나 꿈을 가지고 있다. 꿈을 이루는 성공하는 리더들의 삶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다. 성공의 태도를 꾸준히 습관화한 것이다. 이러한 태도와 습관의 철저한 훈련! 참가자들은 주1회 만나서 2시간 동안 함께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 요체는 끊임없는 성찰과 깨달음, 그리고 꿈을 꾸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꿈을 목표로 만들고, 그 목표를 매일 자신의 업무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피드백하는 활동으로 이어진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만끽하는 사람들! 꿈을 찾아가는 사람들! EPL 78기를 자랑스럽게 소개한다.

2018년 1조원 수주목표를 설정하고, 출선해서 학습하는 CEO, L 사장은 자칭 동방불패다. 그는 학습한 내용을 칼같이 업무에 적용한다. 직원들과 부인까지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에 집중하도록 돕는 코치로서의 순수한 열정과 역량을 과시한다.

기업에서 수십 년간 성공적으로 경영관리를 해 온 K 부사장은 일단 세운 목표는 큰 목표든 사소한 목표든 개인목표든 업무목표든 모조리 실행하는 말없는 실천력에 우리 모두는 놀란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실행하면서 변화하는 장기적인 과정을 즐기는 것이다.

항상 잔잔한 미소가 아름다운 S 지점장은 목표설정표 모범샘플을 제시해 탁월한 학습역량을 보여준다. 그녀는 제대로 작성된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오는 9월 30일에는 명쾌하게 증명해 보일 것이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인다는. K 국어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자기다움을 찾아가도록 돕는 보람과 기쁨으로 "나는 날마다 행복해지고 있어요"라고 말한다.

오직 자신을 성찰하는 일에 몰입하는, 인생을 달관한 거사인 S 사장님은 토의 과정에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목격한 삶의 이치를 깨우쳐준다.

철저한 자기성찰과 진정한 삶의 목표에 깊이 몰입해 있는 L 회계사는 자신의 내면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용기와 진솔함으로 잔잔한 감동을 자아내게 한다.

이제 자신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고 말하는 K 영어선생님은 "꿈과 목표의 위력을 경험하고 알게 된 지금은 매일 아이들에게 희망을 일깨우기 위해 만나는 학생들에게 전과는 다른 관심을 가지고 꿈을 깨우는 질문을 한다. 그때 아이들의 반응이 너무 의외임을 보게 된다"고백한다.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고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아름답게 변화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에너지를 준다. 자신의 행복과 성공은 물론, 조직의 성장도 함께 달성한다. 외부로부터의 수동적인 변화가 아니라 깊은 내면으로부터의 능동적인 변화이기에 더욱 아름답다.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꾸준한 변화와 습관화, 이것이 EPL의 큰 장점이다.

누구나 변화를 시도하지만 이를 습관으로 만드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EPL에서 만난 분들은 이미 생활이 되어 있다. 꿈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변화! 참가자들을 안내하는 FT는 물론 모든 참가자들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KMI**

구건서 노무법인 B&K 대표노무사



▶ 제5회 독서경영 오픈세미나는 섬김리더십과 책쓰는 법 강연으로 열렸다.

문제의식 가진다면 누구나 작가 "섬김리더십과 책 쓰는 법"

제5회 독서경영 오픈세미나 5월 14일(수) 나라인재발전소 1층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책은 누구나 쓸 수 있다. 다만 쓰는 방법을 모를 뿐이다. 그러나 문제의식을 가진다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 책이다."

5월 14일 다섯 번째로 열린 '독서경영 오픈세미나'는 저자 강연과 함께 '책 쓰는 법'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나라인재발전소 1층 교육장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최근 <이경숙의 섬김리더십>을 출간한 양병무 본원 원장이 강사로 나섰다. 그동안 전공서적, 수필 등 다양한 저술활동을 해온 양병무 원장의 '책 쓰는 비법'을 듣고 싶다는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특강 형식으로 마련한 자리다.

섬김리더십과 VICTORY리더십

"왜 섬김리더십이 주목받는 것일까?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변화하면서 리더십 또한 권위를 버리고 칭찬과 격려, 상대에 대한 배려가 덕목으로 꼽히고 있다. 이경숙 총장은 '부드러운 힘이 세상을 바꾼다'는 섬김리더십의 실천으로 숙명여대를 대학행정혁신의 메카로 만들었다."

양병무 원장은 이경숙 총장의 리더십을 'VICTORY리더십'으로 정의했다. V는 Vision으로 이 총장은 숙대 12년의 마스터플랜을 세웠다. I는 Intelligence로 전문성과 능력에 따른 적재적소의 인사관리를 실시했다. C는 Communication으로 총장이 알면 직원도 안다는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T는 Time management로 시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 관리 10계명을 철저히 지켰다. O는 Open mind로 열린 마음을 가졌다. 양 원장은 오픈마인드가 섬김리더십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솔선수범이 섬김리더십의 표상으로 이를 통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R은 Responsibility로 모든 책임은 리더가 진다는 자세이다. Y는

Yes로 조직원들에게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주문했다.

꿈을 가진 사람만이 책 쓸 수 있어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책 쓰기. 그러나 누구에게나 쉬운 일일 수는 없다. 양 원장은 "완벽한 책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책 쓰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세상에 내놓을 용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책은 집짓기와 같은 작업으로 설계도-골조공사-벽돌-인테리어 작업이 필요하다. 먼저 책의 제목을 정하고 세부 목차로 들어가야 한다. 서론부터 쓰다가는 책 쓰기가 연례행사가 되어 버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메모의 습관화도 글쓰기의 중요한 덕목이다."

특히 양 원장은 책 쓰기에 있어 샘플을 정하고 벤치마킹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 예로 본원 회원이기도 한 김창송 성원교역 회장, 유상욱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정문술 미래산업 고문 등을 거론하며, 글쓰기 선배들에게 적극적인 조언을 구할 것을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양 원장은 참가자들에게 "책을 쓰고 싶은 꿈을 가진 사람만이 책을 쓸 수 있다"며, 각자의 인생에서 책 쓰기를 목표로 정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연구원은 회원들의 '집필' 활동을 돕고자 양병무 원장을 중심으로 관심있는 회원들과 함께 향후 책 쓰기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 학습하는 소모임을 조직하기로 뜻을 모았다. **▶▶▶**

글·사진-정용달 팀장 dal2020@khdi.or.kr

도요타자동차 vs 미라이공업의 창조·혁신 경영사례 비교체험

발상의 전환을 꾀하라

유상옥 (주)코리아나화장품 회장

본원은 창조경영, 상상경영, 감성경영 시대에 발맞춰 세계적인 일본의 대기업 도요타자동차와 일본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미라이공업을 시찰하고 특별세미나를 통하여 발상의 전환을 꾀하고자 일본으로 창조경영시찰단을 파견했다. 지난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간 이뤄진 시찰단의 여정을 유상옥 회원의 시찰기로 소개한다.

인간개발연구원의 목요조찬세미나는 1,550회를 넘었다. 조찬세미나와 겹들여 해외산업연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떠오르는 세계브랜드 TOYOTA의 JIT(Just in Time)시스템을 현장연수로 체험하고자 제안한 회원으로서 이번 2박3일 연수에 참가하였다.

소니를 대신한 일본 대표브랜드 도요타자동차

JIT시스템으로 경영혁신 이뤄

세계 제2의 경제대국 일본의 대표브랜드는 'SONY'였다. 그 소니가 90년대 일본열도를 뒤흔든 버블경제 붕괴 후 소니보다 더 좋은 상품들을 경쟁사에서 설세없이 쏟아내기 때문에 조금씩 밀리면서 이전 도요타자동차가 그 자리를 물려받고 있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Forbes)가 발표한 '세계 200대 평판 좋은 기업' 순위에서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100점 만점에 86.53점을 얻어 1위를 차지하였다.

1867년 도요타 사키치(豊田佐吉)가 방직공장으로 창업하여 그가 발명한 무정지저환식(無停止換式) 자동직기의 특허권을 영국에 넘긴 자금으로 2세인 도요타 키이치로(豊田喜一郎)가 자동차산업으로 변신하였다. 도요타는 1985년에 366만대를 생산한 이래 27개국에 진출하여 07년 853만대를 생산해 자동차산업 세계 탑의 자리에 올랐다.

도요타는 연매출 24조엔(240조원), 이익 16,000억엔, 투자 15,000억엔, R&D 8,900억엔, 사원수는 일본에 67,000명, 전세계 30만명이다. 50년 전에 크라운차가 미국에 수출이 시작된 후 07년에 해외생산이 국내생산을 추월하였다. 27개국에서 53개 공장을 가동한다.

도요타의 경영혁신은 JIT시스템으로 대표된다. 자동차는 3만개의 부

품으로 조립된다. 그 많은 부품들이 하청공장에서 필요한 양만큼 필요한 때에 맞춰 필요한 곳인 조립공정에 직접 투입된다. 즉, 부품창고의 출입과 절차가 생략되고 부품공장에서 생산된 부품이 조립공정에 곧바로 공급된다. 그 많은 부품을 저장하지 않고 현장에 투입하니 재고관리가 생략된다. 재고부담이 없으니 생산성이 올라가고 원가가 절감되어 경쟁력이 향상된다.

JIT시스템은 컴퓨터에 의하여 운영된다. 미국의 테일러나 포드자동차의 흐름작업과는 달리 다능화(多能化)작업이 이루어진다. 한 공정에 여러 종류의 차종(車種)이 한 사람에 의하여 한 곳에서 이루어진다. 로봇이 순차적으로 부품을 작업장소로 날라준다. 조립공정에는 로봇의 진로가 거미줄보다 더 복잡하게 그려져 있고, 작업라인은 컨베이어를 타고 한 줄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한 공정이 끝나면 다른 공정으로 로봇이 끌고 간다.

조립공은 한 장소에서 고무벨트도 끼우고 문짝도 달고 볼트도 죄고 다음 공정으로 넘긴다. 한 공원이 몇 가지 작업을 한 공정에서 치른다. 자동화(自動化) 즉, 사람이 움직이는 제도이다. 혹 작업 중 문제가 생기면 기계를 멈추고 문제를 해결하는 권한이 공원에게 주어진다.

끝없는 신사업으로의 변화 시도

과거와 미래를 잇는 도요타 산업기술기념관

도요타의 오다가 히데아끼(大高英昭)씨의 말이다. "도요타 차는 제품질, 물류품질, 애프터서비스품질, 내구(耐久)품질을 보장하여 품질에 민감한 일본인 고객을 만족시키는데 익숙해 있다. 모도마찌(元町)공장



- ① 도요타회관에서 시찰단원들
- ② 미라이공업 공장을 방문한 시찰단
- ③ 오다케 히데아끼 전 도요타 북아메리카 사장 강연
- ④ 도요타의 미래우승수단
- ⑤ 도요타회관에서 유상옥 회장
- ⑥ 김창송 단장이 야마다 사장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 ⑦ 미라이공업을 방문한 시찰단



3



4



5



6



7

의 작업은 2교대로 이루어지며 철저하게 차의 외관과 기능검사를 거쳐 출고된다."

도요타는 모든 제조과정을 원가 중심으로 한다. 재료비 원가를 줄이고 설계와 작업공정의 인원을 면밀하게 연구하여 원가절감 요인을 찾아낸다. 재료혁신, 작업혁신에 의하여 원가를 낮춘다. 차의 판매가격에서 원가를 빼고 수량을 곱하면 기업이익이 계산된다고 인식한다.

이익 = (판매가 - 원가) × 대수(台數)

도요타가(豊田家)는 방직에서 차로, 주택사업에서 신중사업인 항공기부품, 하이브리드차, Robot산업으로 대(代)를 이어 변신을 하고 있다.

신차종을 개발하는데 2천억엔이 들며 4년이 걸린다. 개발기간의 단축과 고객을 끌어들이는 디자인 부문에 주목하며, 고유가시대에 맞추어 하이브리드차의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배

터리 차는 100만대를 팔았으며, 2012년에는 연간 100만대를 목표로 한다.

도요타가 세계적인 큰 회사이지만 사원의 급여수준은 여타 회사와 비슷하고 승진이 되어야 개인급여가 오른다. 작업공정마다 표준 Spec이 있어서 교환작업이 이루어져 동일작업에서 오는 신체상의 불이익을 줄여주는 등 작업자의 건강을 챙기며 안정된 직장관을 자랑한다.

우리 연수단 일행은 오후의 일정에 맞추고자 버스 안에서 도시락을 먹고 도요타 산업기술기념관(TOYOTA MUSEUM)을 방문하였다.

이 곳은 방직부와 차 부문의 박물관이다. 창업자 도요타 사키치의 발명품인 방직기가 시범을 보여준다. 1930년 이 방직기의 특허를 큰돈을 받고 영국에 팔아 차 산업에 투자한 것은 도요타 2세(二世) 키이치로(喜一郎, 1894-1952)의 영단이다.

방직기가 발명되기 전에도 목화(木花)에서 실을 뽑아내고 베틀에 걸어서 무명을 짜는 수공업시대의 옷감 만드는 공정을 보여준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시골에서 어머니, 할머니들이 문래로 실을 뽑고 베틀에서 옷감을 짜던 기구와 방법이 너무도 똑같이 재연(再演)되어 있다.

차의 개발공정과 옛 차종이 보존된 기념관의 크기와 전시물에 일본 대

표기업의 보존문화를 보았다. 누구든지 어디로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1인승의 미래 운송수단 'i-unit', 다양한 형태로 인간의 삶을 도와주는 '도요타 파트너 로봇' 등이 미래 생활혁신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 사원의 창의가 성장 견인하는 미래이공업 근무의욕 고취 노력에 직원 불만 사라져

국내 마스크에도 소개된 미래이공업(未來企業)을 찾았다. 스위치박스를 비롯한 주택건축의 부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다.

미래이공업은 261억엔의 매출로 38억엔의 이익을 올리며, 800명의 사원이 일하는 중견 회사다. '고객이 좋아하는 상품을 비싸게 팔아 돈을 번다'는 이 회사의 특징은 전 사원의 발상(發想)으로 3,000건의 특허와 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의 2만점에 이르는 부품이 모두 사원의 창의(創意)에서 나왔다. 제안자에게 건당 500엔을 포상하고, 5년에 한 번 전 사원 해외위로여행을 한다. 모든 사원이 열심히 일하고 많은 제안을 하도록 사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에 많은 배려를 한다.

불만자 발생의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평가제를 도입하지 않고, 많은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수영업소의 포상제도도 없다. 영업소장회의 같은 것도 없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현장중심의 영업을 한다. 출산휴가 3년을 주지만 대개는 1년만에 복귀하여 퇴직자가 거의 없단다. 이 회사는 사원들이 불만 없이 스스로 일하며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

창업자 야마다(山田昭男)씨의 독특한 리더십과 발명가 시미스(清水昭人) 전무의 역량으로 성공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 다만 인사평가가 창업자의 리더십에 의존되는 경영이 80세에 가까운 노경영자의 후계가 염려되기도 한다. 혈령한 차림에 수염도 깎지 않은 채 외국방문객 앞에 나와 이야기하는 야마다씨에게 연민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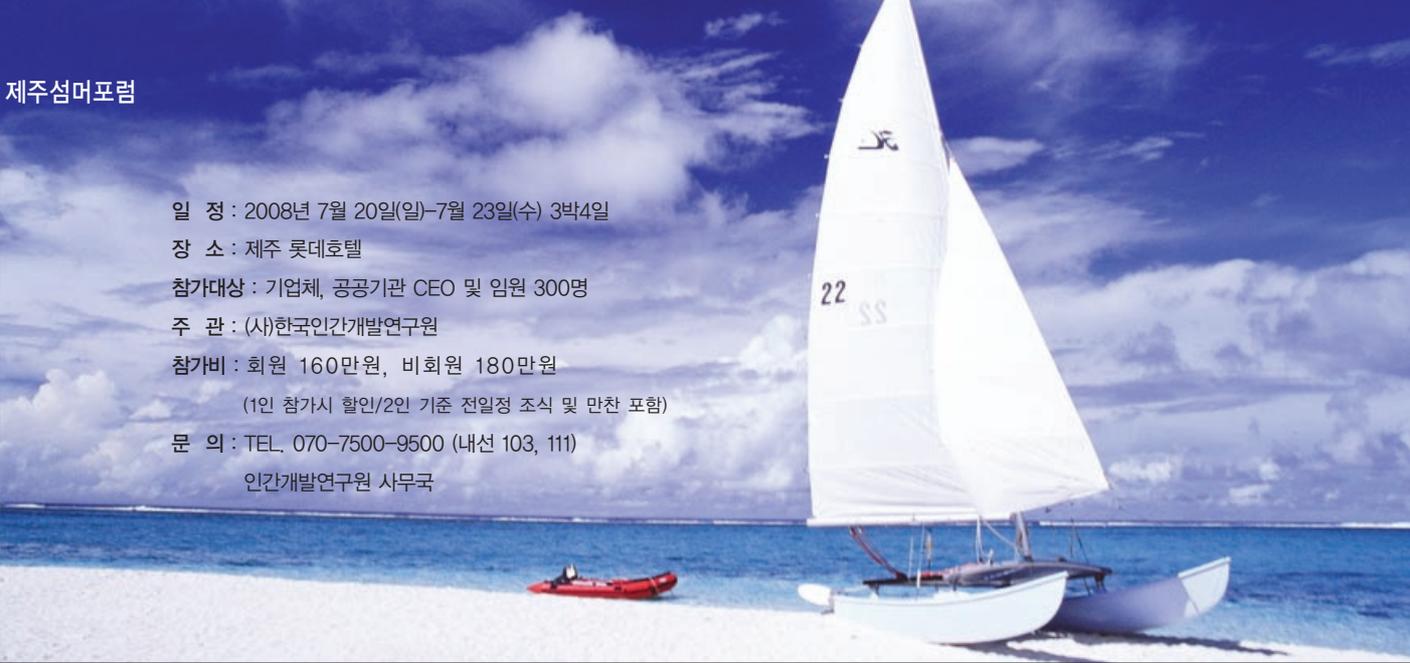
아오모리 대학 조우진 교수의 통역이 탁월하였고 후꾸오까 서남학원 대학에서 일하는 방송인 박원홍 전 의원과 함께여서 뜻있고 재미있는 연수여행이 되었다. **김예**



유상욱 회장

고려대 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경영학 석사, 미국 유니온대학 경영학 박사학위를 마쳤다. 동아제약을 거쳐 라미화장품, 동아유리공업 사장을 역임하고 89년 코리아나화장품을 창업했다. 천안기업인협의회 회장, 대한화장품공업협회 회장, 한국박물관회 회장, 한국CEO포럼 공동대표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했다. 본원 감사로도 활동 중인 유 회장은 한국수필가협회 이사로 집필 활동도 겸하고 있다.

일 정 : 2008년 7월 20일(일)-7월 23일(수) 3박4일
 장 소 : 제주 롯데호텔
 참가대상 : 기업체, 공공기관 CEO 및 임원 300명
 주 관 : (사)한국인간개발연구원
 참가비 : 회원 160만원, 비회원 180만원
 (1인 참가시 할인/2인 기준 전일정 조식 및 만찬 포함)
 문 의 : TEL. 070-7500-9500 (내선 103, 111)
 인간개발연구원 사무국



“상상력과 감성, 新마케팅으로 만드는 창조적 미래”

제26회 인간개발연구원 제주섬머포럼

Jeju CEO SUMMER FORUM

Sensitivity CEO, Creative CEO

“미래의 부(富)를 창조하는 길은 더이상 상품의 기능에서 나오지 않는다. 꿈과 감성이 지배하는 21세기, 소비자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스토리가 담긴 제품을 구매한다. 소비자 감성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은 부를 창조하는 원동력이다” 라고 미래학자 로프 엔센은 말합니다.

이제 창조경영, 감성경영은 소비자들의 인식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고, 고객들의 다양한 기호를 맞추기 위해 업종, 학문 등 모든 분야에서 벽을 허무는 통섭(統攝, Consilience)으로 지식의 통합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최전선에서 지휘하는 리더와 구성원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제안하는 조직의 커뮤니케이션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도 내부고객·외부고객과의 공감능력에 따라 시장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갈릴 뿐 아니라, 국가의 경영도 지도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에 따라 국민들의 여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번 섬머포럼에서는 창의적인 상상력, 휴머니즘과 만나는 감성경영, 그것들을 활용한 매력적인 新마케팅 성공전략을 들어보고 하반기의 경영전략에 도움이 되는 창조적 경영 기법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이야기들로 다양하게 채워질 이번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장만기 / 원장 양병무



Jeju Summer Forum Program

www.khdi.or.kr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기조강연] 문화와 국가경쟁력
조 순 前 경제부총리

[문화예술특강] 아름다운 삶을 위한 시와 음악
이해인 수녀 / 김정식 작곡가



[테마강연] 너와 나를 새롭게 보는 시선, 에니어그램
김현정 한국에니어그램센터 대표

[고객서비스] 최고의 서비스가 최고의 고객을 만든다
손주은 메가스터디 대표이사



[마케팅전략] 고객을 매혹시키는 아이디어
문애란 퍼블리시스웰컴 고문, 창업자

[글로벌경영] 글로벌 통합 경제 환경에서의 이노베이션
이휘성 한국IBM 사장



[마케팅전략] 모티베이터의 역할과 마케팅 성공전략 : 차별화 만이 살길이다
조서환 KTF 부사장

[디자인경영] 미래유산이 될 디자인 혁명으로 세계일등을 키우자
원대연 SADI 학장 (Samsung Art & Design Institute)



[창조경영] 블루 스페이스 전략 (Blue Space Strategy)
이승한 삼성테크노 사장



[트렌드경영] 네트워크 세상이 만드는 새로운 흐름
최휘영 NHN 사장



[문화예술특강] 한젼마와 함께 "미술동네 다가가기"
한젼마 아티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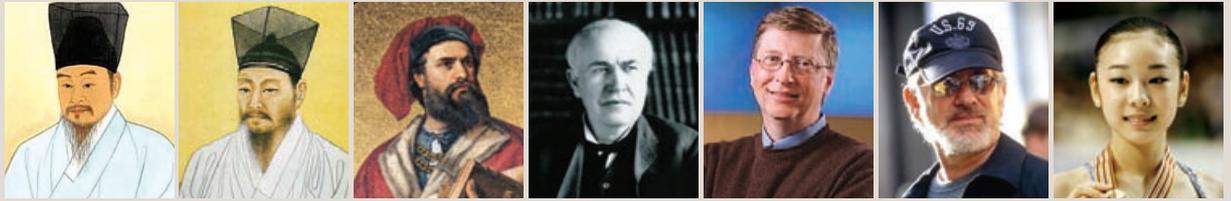
[건강강좌] 비타민C가 보이면 건강이 보인다
이왕재 서울대 의대 교수



[미감강연] 세계화 시대, 창조한국의 경쟁력과 신성장동력
박윤식 美 조지워싱턴대 교수



뽀빠이 이상용과 뮤직밴드가 함께하는 참가자 친교 한마당
가수 김세환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 만찬



불광불급(不狂不及)

문용린 서울대 교수 / 전 교육부 장관

몇 해 전 '미쳐야 미친다(不狂不及)'라는 말이 화두로 퍼진 적이 있었다. 미치지(狂) 않으면 도달하지(及) 못한다는 화두를 조선시대 인물들의 족적 속에서 사례를 통해 풀어간 재미있는 책의 제목이기도 했다. 저자인 정민 교수(한양대 국문과)는 이 말을 이렇게 풀이했다. "세상에 미치지 않고 이를 수 있는 큰일이란 없다. 학문도 예술도 사랑도 나를 온전히 잇는 몰두 속에서만 빛나는 성취를 이룰 수 있다. 한 시대를 열광케 한 지적, 예술적 성취 속에는 스스로도 제어하지 못하는 광기와 열정이 깔려있다."

정민 교수는 이 책 속에서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열정과 광기를 수채화 처럼 그려놓았다. 그 많은 조선의 선비 지식인 중에서도 그가 주목한 이들은 권력의 중심부에서 언제나 비껴서 있었던 주변인이자 마이너리티였다. 하긴 권력의 중심부에 서있었던 선비들의 광기와 열정은 피 튀기는 당파싸움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싶은 생각이 일지도 않았을 것이다.

허균,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정약용, 김득신 등 재기와 문예가 넘치는 선비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그들이 미친 듯이 몰두했던 일들이 꼭 우리의 가까운 삼촌이나 이웃 아저씨들의 이야기처럼 친근하게 느껴져 와서 서양의 고전을 읽는 것과는 전혀 색다른 맛을 느끼게 한다. 박지원도 이런 '미쳐야 미친다'라는 류의 글을 쓴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중 하나를 정민 교수는 이렇게 소개한다. 글에 미친 선비 이야기다.

글을 잘 쓰는 선비가 있었다. 그가 일찍이 과거를 보러갔다. 붓을 열심히 돌려가며 답안을 작성하고 있는데, 글 한자가 유난히 잘 써졌다. 왕희지의 글체와 너무 유사하였다. 자기가 쓴 글이지만 자기가 보기에 너무 잘 썼다. 그래서 그는 답안 작성도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그 글자만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차마 그냥 버리지 못하고 고이 접어 품에 안고 돌아왔다.

과장(科場)에서 답안을 작성하다가 자기가 쓴 글에 도취되어 과거를 망친 선비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과거는 망쳤지만, 그는 필경 무엇인가를 크게 성취(及)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 성취가 꼭 입신출세성공이 아니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다. 마음의 성숙과 확대, 그리고 깊은 침잠의 경지에 이르는 것도 크다면 매우 큰 성취이기

때문이다.

다산 정약용도 이렇게 미쳐서(狂) 미친(及) 사람 중의 하나이다. 40세의 야심만만한 나이에 당파 싸움에 몰려 18년간의 유배생활에 처해진다. 불평과 한탄으로 세월을 보낼 법도 한데, 그는 곧 미칠(狂) 일을 찾아낸다. 18년의 강진 유배 동안에 그는 책에 미친다. 책을 읽기에 미치고, 사색하기에 미치고, 글쓰기에 미친다. 그래서 경이적인 기록을 세운다. 심오한 사상과 주장이 담긴 500여권의 책을 집필한다.

이 책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미쳐야 미친(狂而及) 무수한 예들을 기억한다. 불가(佛家)의 도리(道理)를 추구하고자 중국과 인도를 거치고 세계의 지붕인 파미르고원을 넘고, 타클라마칸 사막을 가로지르는 대장정을 펼친 신라 성덕왕 시기(AD 723)의 혜초 스님이 그렇고,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험난한 길로 알려진 실크로드를 13세기에 이미 섭렵한 마르코 폴로가 그 예다. 미치지(狂) 않고서는 해낼(及) 수 없는 일을 그들은 해낸 것이다.

물론 가까운 예도 많다. 에디슨도, 빌 게이츠도, 스피버그도, 정주영도, 이병철도, 박정희도 모두가 미칠 정도로 자신의 신념에 투철했고, 그 성취에 매달렸기에 그들은 남들이 못하는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미쳐야 미치는 일(不狂不及)이 물론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다. 타인에게 줄 피해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득과 영달에만 줄곧 不狂不及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해적(自害的) 不狂不及일 뿐이다. 자신과 타인의 삶의 질을 고양(高揚:upgrade)시키는 쪽으로 不狂不及이 일어나야 한다. 이런 것을 자아실현형 不狂不及이라 할 수 있겠다.

10대의 나이에 세계무대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다. 수영선수 박태환, 피겨 스케이터 김연아, 발레리나 박세은, 수학영재 이석형과 김형록, 19세의 국수 윤준상, 미국과학대회를 휩쓴 김건 등등. 이들은 이미 10대의 나이에 不狂不及의 지혜를 터득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모든 전문분야에서 不狂不及하는 젊은이가 많아져야 한다. 젊은이들이 각자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가치로운 일에 不狂不及할 때 한국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의 不狂不及이 우리나라의 과학을 살릴 것이고, 예술가들의 不狂不及이 우리나라의 예술을 살릴 것이다. 不狂不及의 활기찬 역동이 넘치는 사회를 우리 만들어야 한다. **문용린**



고속도로는 하이패스 충전하신 분들로
소통이 원활합니다



은행 중에서는
IBK 기업은행만 가능하다죠?

은행권에서는 처음입니다! IBK 기업은행의 하이패스 카드 충전 단독 서비스

복잡한 톨게이트에서 차를 정차하셨다구요? 매번 홈페이지 접속이 귀찮으셨다구요? 이제 하이패스 카드는 IBK 기업은행에서 충전하세요. 전국 IBK 기업은행 지점과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간단히 충전됩니다. 하이패스 카드 단말기 구입도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로 활용 가능 ■ 놀이공원, 주유 등의 다양한 혜택



하이패스 카드도 역시 IBK 기업은행